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NIE 활동 지속가능성
요인 연구

: 제주NIE학회 사례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李 炫 淑

2017年 8月

제주지역 NIE 활동 지속가능성
요인 연구

: 제주NIE학회 사례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崔洛辰

李 炫 淑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 年 6 月

李炫淑의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박경숙



委 員

최구신



委 員

고영천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7年 6月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Factors of NIE
Activities in Jeju
: A Case of Jeju NIE Society

LEE HYUN SOOK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Nak J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17.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7
1) 연구 배경	7
(1) 신문의 교육적 기능	7
(2) NIE에 대한 이해	10
(3) 국내 NIE 연구동향	12
(4) NIE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18
(5) 국내 NIE 강사 연구 현황	19
2) 지속가능성 요인	21
(1)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21
(2) 지속가능요인의 구성	25
(3) 지속가능요인의 구성에 대한 NIE 적용	26
3) 제주지역 NIE 활동 현황	27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3
1) 연구문제	33
2) 연구방법	33
(1) 연구대상	33
(2) 심층면접	38
제4장 연구내용	39
1) A그룹 NIE 강사 면접	39
2) B그룹 NIE 강사 면접	48
3) C그룹 NIE 강사 면접	57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62
1) 연구결과 요약	62
2) 결론	63
3) 한계 및 제언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3
부록	76

표 목차

<표 1> NIE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 내용의 필수 구성요소	4
<표 2> 정규 교육과 NIE 교육의 차이	5
<표 3> 미디어 교육의 세 가지 패러다임	9
<표 4> NIE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영역 현황	15
<표 5> 제주지역 신문사 NIE 지원사업	28
<표 6> 제주도교육청 NIE 사업 연도별 예산	32
<표 7> 제주도교육청 2017년도 NIE 중점학교 지원	32
<표 8> 면접대상 그룹 정리	37

【국문초록】

제주지역 NIE 활동 지속가능성 요인 연구 : 제주NIE학회 사례를 중심으로

NIE(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을 교재로 활용하는 교육 활동이다. 제주에서의 NIE 활동은 학교와 신문사를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NIE 수업과 신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NIE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들은 NIE강사이다. 제주에는 대표적인 NIE 강사들로 구성된 제주NIE학회가 활동하고 있다. 제주NIE학회는 제주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NIE관련 단체로 2006년 NIE연구회로 출발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NIE학회의 지속가능한 요인을 가지고 제주지역 NIE 활동의 긍정적 요인과 저해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제주지역 NIE 강사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면접대상은 10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면접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에서 면접을 통해 강사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NIE만으로도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복합적 NIE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NIE학회 회원 활동은 지속하고 있지만 NIE강사로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룹이다.

이 연구에서는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제주NIE학회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향후 제주의 NIE 활동의 지속가능성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면접결과를 통해 분석된 제주지역 NIE 지속가능 요인은 다음과 같다. (1)강사 자신의 자아 성장을 통한 성취감 (2)지속적 신문 읽기의 필요성 (3)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향 (4)신문사의 NIE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 (5) NIE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취 (6) NIE 지도자 활동을 통한 교육자로서의 보람 (7) 창의성 (8) NIE를 활용한 자녀교육 성과 (9)

강사들의 인간적인 네트워크 및 신뢰 (10) 다양한 교육과의 결합 용이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해요인은 (1) NIE 목적에 대한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음 (2) NIE활동 강사들의 인간적 갈등 (3) 신문사의 NIE 지원 사업 약화 (4) 신문저널리즘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교육적 자료 활용도 떨어짐 (5) NIE를 통한 자신의 성장(자아실현)기회가 부족 (6) NIE 활동과 경제적 소득의 상관관계 (7) 신문 단일 매체활용 교육의 인기도 하락 (8) 시민교육 및 공동체 교육활동에 참여한다는 사명감 부족 (9) 학교 현장의 NIE 효과에 대한 인식 미흡 등이다.

제주지역 NIE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긍정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제주를 넘어 NIE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추후 NIE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NIE 강사와 지도자 뿐 아니라 학교, 신문사, 교육현실, 제도적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신문활용교육(NIE), 지속가능성, NIE강사, 제주NIE학회.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NIE (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을 교재로 활용하는 교육 활동이다. 1932년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신문을 대학의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처음 NIE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문맹 퇴치와 학생들의 문자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계와 언론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신문협회보’ 1985년 9월15일자(제6호)에 처음 거론되었다.¹⁾ 뒤이어 1994년 5월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학교교육에 NIE 제도를 도입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이후 1995년 4월6일부터 국내 신문사로는 처음으로 중앙일보가 신문지면에 NIE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NIE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도 발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학교교육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객관식 시험을 없애겠다는 발표를 한 지역교육청도 있다. 2018년부터 부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시험평가를 전면 폐지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암기해 정답을 고르는 교육으로는 융합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취지이다. 이것은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NIE의 효과를 입증한 논문가운데는 문제해결력을 키운다는 연구결과²⁾가 이미 제시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이뤄져 온 NIE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1990년대 초 NIE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교육방법을 마련해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였던 사례를 책자로 냈던 교사가 화제가 된 이후 뾰족한 활동사

1) www.kpf.or.kr

2) 2010년 한국신문협회가 정문성(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NIE가 학업성취와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결과 학업성취도와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례가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2009년 한라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³⁾를 시작으로 제민일보 ‘생각이 자라는 NIE’⁴⁾가 시작되었다. 이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도 NIE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문 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의 신문활용교육 NIE(Newspaper in Education)활동은 학교와 신문사⁵⁾를 크게 두 축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학교현장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 신문사에서 다양한 NIE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NIE 활동이 학교와 신문사를 크게 두 축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학교 NIE와 신문사 NIE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축은 NIE 강사들이다. 제주에 대표적인 강사들로 구성된 제주NIE학회가 활동하고 있다. 2006년 NIE연구회로 출발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제주NIE학회 회원들은 학교 방과후,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학교 NIE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문사 NIE연구위원으로 NIE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거나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NIE사업 강사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NIE 활동을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E 주체인 NIE 강사, 지도자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조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요인을 가지고 NIE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의 NIE에 대한 논문은 주로 NIE 효과, 활용법, 현황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신문을 매개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인식과 수업방법과 태도가 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NIE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지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NIE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교육을 시행하는 강사 혹은 지도자의 지속가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NIE 강사 혹은 지도자를 연구함으로써 NIE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신문협회에서도 NIE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3) 2009년 한라일보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연재 시작.

4) 2014년 제민일보 ‘생각이 자라는 NIE’ 연재 시작.

5) 제주지역 신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NIE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는 없지만 신문지면, 보도내용을 근거로 볼때 제주지역에서는 한라일보 제민일보에서 NI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지만 공교육에 NIE를 투입시키기 위한 교사에 대한 지원에 비해 강사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학교와 신문사가 NIE 사업을 지속해 오는 것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학교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NIE 강의를 지속해오고 있는 이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의 전문성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처우 및 신분에 대한 보장도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NIE 강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하는 것에 인색한 학교시스템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분류되는 강사 자격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NIE 강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으로서 신문사 등 언론사,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교육기관 등 운영주체에 의해 교육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교육수료 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독서지도, 논술 등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이 병행해 활동하고 있다. 민간에서 지급하는 NIE 강사 자격증은 국가기관이나 책임 있는 공적 운영주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NIE 강사 자격을 부여받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에 포함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자격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현재 민간에서 부여하고 있는 NIE 강사 자격증들은 일부 민간단체에서 교육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교재를 판매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NIE 강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NIE 교육 관련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NIE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전문성 있는 강사진의 육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김경환 외, 2011)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의 ‘국내 NIE현황 조사 연구’에 따르면, NIE지도사는 대중매체 일반의 특성과 신문의 구성요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 실행하는 전문가이다. 이와 같은 NIE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 내용의 필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1. NIE 지도사 자격 프로그램 내용의 필수구성요소.

항목	구체적 사례
커리큘럼 구성	신문에 대한 이해(신문의 구성요소) 실기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연구 모의수업 과정 프리젠테이션 수업방법 교육 교과서 분석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방법	토론교육 학습자 이해교육 신문 독서 교과서 통합 학습
교재개발	책과 신문을 연계한 수업 학생의 수업자료 공유 활용 가능한 워크북(학습지) 개발

위에서 보듯 신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실기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연구, 모의 수업 과정, 프리젠테이션 수업방법 교육, 교과서 분석,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NIE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1년으로 이뤄지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과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이뤄진 지도사과정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제주NIE 강사들은 소모임 형태로 초기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NIE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교육 이외에도 비정규교육이나 사회교육, 가정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교육은 교육자가 교사이고 제도화된 교육이며 비정규교육은 강사가 진행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교육 대상은 성인이 대부분이지만 부정확한 것이 많은 상황이다. 가정교육은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표 2. 정규교육과 NIE 교육의 차이

교육	교육자	제도화 여부	대상	비고
정규교육	교사	○	학생	
비정규 교육	강사	×	학생	
사회교육	강사	×	부정확	
가정 교육	부모	×	자녀	

제주지역처럼 자발적인 연구모임으로 제주NIE학회가 구성되어 10년 동안 이어진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 강원지역의 경우 신문사에서 배출한 NIE 강사 모임이 구성되어 있지만 제주NIE학회는 강원지역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NIE활동을 하는 사례는 모범사례로 2013년 미디어전국대회⁶⁾에서 연구자가 ‘지역사회와 NIE’를 주제로 사례 발표하였다. 사례발표 내용은 지역신문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NIE 강사 조직인 제주NIE학회와 협업하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신문의 공적인 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이 같은 성과는 전국단위 NIE 연구 결과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가 적극적인 회원들의 활동과 신문사와 제주도교육청에서 NIE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지역NIE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듯 제주NIE학회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NIE를 연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열악한 여건과 상황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지속가능하도록 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연구에서는 언론, 신문, NIE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요인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이념과 미래를 위한 교육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은 이상적인 사회를 향하여 노력해가는 과정으로 도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스스로 함께 참여할 인간을 키우기 위한 필요성에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지속가능성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핵심 가치인 동시에 교육이 나아가

6) 미디어교육 전국대회는 우수 미디어교육 사례발표와 수업 시연 등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과 교사들의 미디어교육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야할 방향이기도 하다. 이상적인 미래사회는 인간들이 공동의 가치를 생활의 규범적 토대로서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도달되고 유지될 수 있기에 교육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정기섭, 2014)

‘신문의 위기’⁷⁾라고 불리는 열악한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해마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활동, 즉 NIE 활동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연구의 의의를 더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NIE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을 찾아보고 NIE활동의 지속가능 저해요인을 찾아내 침체된 NIE학회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또 NIE학회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 NIE 활동의 지속가능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장기간 지속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공고해진다는 측면에서 제주지역 NIE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방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IE 교육의 지속가능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인과 저해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회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의 NIE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NIE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NIE 강사들로 구성된 제주NIE학회의 활동은 사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제각기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 연구작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주로 환경, 개발분야 처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NIE 강사들에게 접목할 경우 어떤 요인이 도출될지 탐색하고자 한다.

7) 신문의 위기를 다루고 처방과 대안을 제시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2003년에는 신문의 위기에 관한 논의에는 ‘신문의 위기?’라고 물음표가 붙었다. 한국언론재단의 ‘신문의 위기?:진단과 처방’(강미선외, 2003)이라는 연구서는 당시의 상황이 과연 신문의 위기 상황인가를 진단하고 그에 따르는 처방을 제안하였던 연구였다. 2003년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언론재단은 다시 ‘위기의 한국신문(2005)’ (김영옥외, 2005)이라는 연구서를 냈다. 신문 산업의 위기는 매출액이나 광고비와 같은 재정적인 지표 뿐 아니라 구독률과 열독률과 같은 이용자 관련 지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2년 신문을 정기구독하는 가구의 비율은 52.9%로 두집 중에 한집이상은 신문을 구독하였다. 그러나 2012년 가구 정기구독률은 24.7%로 떨어졌다.네집 중에 한집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0년간 가구구독율은 53.3% 하락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 가구구독률은 더 떨어져 20.4%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스마트 시대 신문의 위기와 미래’)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연구 배경

(1)신문의 교육적 기능

신문은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미디어의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신문 속에 다양한 형태로 수록된 정제된 지식과 정보는 무수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뉴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건강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면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신문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사실적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과 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그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 신문 속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소식이 담겨진다. 신문활용교육(NIE)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5년이다(설규주 외, 2010; 신문협회보, 1985. 9. 15).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될 당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활용해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미디어 운동 측면이 강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NIE도 처음에는 신문사의 미래 독자 양성을 위해 신문사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학교 교육을 위한 보조교재 만 아니라 평생 교육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다(김기태, 2007; 박미영, 2005).

초기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는 보조적인 교재의 지위에 그쳤던 신문 활용 교육은 최근 들어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보조 교재의 지위를 넘어서고 있다. 신문 자체가 독자적인 하나의 교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문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 요소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문 활용 교육의 발전과 연구에 대한 고찰이 이뤄지고 있다.

8) 강명선 '신문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신문활용교육이 중학교 사회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부산대학교 대학원, 2014)

우리나라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언론의 통제 등 특수한 매체 환경에 의해 미디어교육은 교육이라기 보다는 운동으로서 논의와 활동이 지배적이었고 미디어 운동, 수용자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미디어교육의 연구에 있어서도 현장 실천가, 사회운동가, 지도자,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천을 위한 지원 성격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은 사실상 독재 권력에 의해 언론의 통제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이었다. 그 때문인지 미디어 교육적 차원보다는 미디어 운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보다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른바 미디어 교육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이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띄기 시작하였다.

최근 예전에 비해서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논의의 내용은 크게 예전에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의 경우 학교 교육현장에서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신문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도하면서 학교에서는 뒤따라가는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 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도 학교가 아니라 1997년,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하는 등 여전히 사회운동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김기태, 2007).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교육현장을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기선정·김광희, 2004; 김양은, 2005; 김기태, 2007, 윤영태, 2009). 첫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매체를 살펴보면 미디어 교육은 주로 영상매체와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매체 접촉도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를 활용하는 현상이 집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23회의 미디어 교육 교사 연수가 이뤄졌지만 신문활용교육 7회를 제외하면 모두 모두 영상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정 매체에 치우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미디어 매체의 긍정적인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디어를 제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를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제는 미디어교육이 신문,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최민재, 2006).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이해와 비판, 활용, 미디어 생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은 매체 이해, 매체비판 및 비평, 매체 감상, 매체 수용, 매체의 창조적 활용, 매체 적응, 매체 제작 등 다양한 교육 개념을 포괄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이해 방식은 문화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미디어교육에 관해 제기된 다양한 논의들은 대중예술적 관점, 기술 도구적 관점,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 등 세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김양은, 2005). 미디어교육의 기본이념은 매체의 교육적 활용 보다는 올바른 수용자 교육을 통해 수용자에게 미디어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아, 초등, 중등, 사회교육까지 범위가 넓다. 미디어교육을 대중예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선별적 미디어 수용과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인 기술, 도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극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를 해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극적 미디어 생산과 메시지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패러다임에 따른 인간형도 수동적, 능동적, 창조적 인간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 미디어 교육의 세 가지 패러다임.

패러다임	대중예술적 관점	기술,도구적 관점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
교육목적	보호주의, 예방적 차원	개인이 자율 규제 능력	환경적응능력=미디어 능력(환경과의 상호 능력)
미디어정의	대중예술	미디어산업	일상 환경
요구능력	선별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분별	적극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해독	적극적 미디어 생산 메시지 창조
인간형	수동적 인간	능동적 인간	창조적 인간

<출처>김양은 미디어교육의 개념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28.p10.

(2) NIE에 대한 이해

신문활용교육(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NIE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2년을 맞고 있고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NIE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5년으로 볼 수 있지만 NIE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1994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신인 한국언론연구원은 서울 소재 50여 개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대상으로 NIE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일본 NIE활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한국언론연구원, 1994). 또 5월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학교 교육에 NIE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는 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냄으로써 NIE 도입을 위한 국내 학계와 언론계의 움직임은 본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NIE 프로그램이 지면으로 나타난 것은 1995년이다. 국내 신문 중에서 가장 먼저 NIE를 지면에 게재한 신문은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는 1995년 3월에 NIE 고정지면을 발간하는 외에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였다(황유선·박진우·김위근, 2011).

NIE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신문을 활용한 교육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뉴스를 활용한 교육,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NIE는 학교수업(학습)에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문을 교수매체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교수법이자, 새로운 신문과 교육의 동반자적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최상희, 1998).

오주석(199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NIE 목적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① 신문을 통해 교육대상인 학생의 인지 능력 및 사고력 향상을 도와준다. ②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시민으로서의 인간성·시민성을 함양시킨다. ③ 학생의 창의성을 키우고 촉진시킨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의 해결능력을 신장시킨다. ⑤ 다양한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킨다. ⑥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운다. ⑦ 교육대상인

학생들에게 협동학습의 기회를 줌으로써 협동심을 길러준다. ⑧ 올바른 인성·성·환경·진로·소비자 의식 등에 대한 사회성을 길러준다. 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⑩ 신문을 통해 정보·자료의 분석력과 활용 능력을 높여준다 등이다.

한국신문협회가 발표한 '2012년 국내NIE 현황조사 연구'에 따르면, NIE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신문사는 전국 일간지 9개사, 지역일간지 13개사 등 22개였다. 이는 2009년(13개사)에 비해 9개사가 늘고 2010년(26개사)에 비해 4개사가 줄어든 것이다. 이 중에서 NIE 지면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는 종합 일간지 6개사, 경제지 2개사, 전문신문 1개사, 지역 일간지 5개사 등 14개사였다. 국내 전체 일간지의 13%에 이르는 수치로 일본의 73%나 미국의 63% 수준과 비교할 때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점과 함께 사업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신문사의 NIE가 장기적인 비전이나 체계성 없이 단발성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NIE 지면 제작 외에 NI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문사는 16개사였는데 대부분 '신문 관련 대회 및 공모전 개최'와 'NIE 관련 강의 및 학교현장에서 찾아가는 교실 운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6개사 중 각각 8개사가 이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각 신문사별로 나름대로 차별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신문사의 NIE 프로그램은 유사하고 단조로운 특징을 갖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신문의 NIE 사업의 경우에는 다소 지역공동체와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외국의 신문사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학생이 지면 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가 요청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신문제작 체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사 NIE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NIE 수업영역은 '담당 교과수업'이 43.4%로 가장 많았지만, '자율 활동'(15.6%), '동아리 활동' 10.8%, '진로 활동' 5.1% 등과 비교과 활동 영역도 31.5%로 나타났다.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혼재돼 있는 방과 후 수업에서 NIE를 하는 비율도 14.1%였다. 이어서 신문을 활용하고 있는 수업영역을 중복응답을 포함해서 3순위까지 통합해서 알아본 결과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영역이 각각 41.8%, 31.1%, 27.4%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NIE 강사들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비교과 활동 영역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제주NIE학회 회원들은 신문사와 공동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3) 국내 NIE 연구동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NIE 연구들은 NIE의 교육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신문협회는 2004년과 2005년에 국내 NIE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학교 NIE 실태와 개선 방안(정문성·구정화·박미영, 2004) 과 학생 NIE 실태와 개선 방안(정문성·구정화, 2005)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NIE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NIE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소요시간과, 교사의 수업 방법에 대한 미흡한 숙지상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NIE가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등 장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신문 기사를 스크랩 하기 위해 교과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하나의 사건에 대해 반대적인 시각을 보이는 신문의 특성상 기사 취사선택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NIE 수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런 현장의 평가들은 NIE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선행되어온 NIE 연구들은 NIE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신문협회가 2009년 수도권 지역 6개 중학교 14개 학급 1학년 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성취도 평가의 결과에서도 NIE의 효과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IE 수업반(실험 집단)과 일반 수업반(비 실험 집단) 학생들의 읽기·쓰기·말하기 등 의사소통의 능력⁹⁾을 비교한 결과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실험반 학생들의 성취도는 47.73점으로 비실험반 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40.13점보다 7.6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¹⁰⁾이는 NIE 수업이 학생

9)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구두표현력(Oracy),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도해력(Graphicacy)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한국신문협회 'NIE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2009)

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폭넓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글쓰기에 있어서 창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에세이나 보고서를 쓰는 방법, 능동적으로 읽고 의미를 구성하기 등에서 비실험 그룹보다 뛰어났던 결과를 도출해냈다.

NIE 교육 효과로 학업성취도와 연결시킨 정문성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한 집단과 신문을 수업자료로 사용한 집단 사이에 학업 성취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신문을 활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성취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식 문항보다는 주관식 문항에서 차이를 보여 저급 사고력보다 고급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IE의 효과를 자기 주도 학습과 관련해 연구한 구정화 외(2011)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NIE에 대한 경험을 가졌을 때, 자기 주도적 학습, 주관적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신문읽기에 대한 경험이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것이다. 신문을 거의 읽지 않는 집단에 비해 매일 읽는다고 답하였던 집단이 우수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였다. 최현숙(2003)은 사회과에서 신문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신문을 교재로 하는 시사 발표와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현장 수업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양적 조사 방법이 아닌 현장 수업의 자료와 면접을 통한 질적인 조사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NIE와 포트폴리오의 구체적인 효과와 한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NIE는 학생들의 고등 사고력 신장에 효과적이고 시사발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포트폴리오는 개별화 학습, 논리적 글쓰기, 고등 사고력 신장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리해보면 학업 성취도,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고등사고력 등이 향상됨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회 수업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수권(1998)은 초등 사회과에서의 신문자료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초등 5학년 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신문자료를 환경교육자료로 활용해 환경교육에 있어서 신문자료 활용의 유형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환경교육에서의 신문 자료 활용은

10) 강명선의 '신문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환경 교육의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보였고, 실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전해주는 생동감 있는 학습자료인 신문의 활용은 환경교육에서 유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초등 사회과에서 경제분야에서는 김금숙(2002)이 초등 5학년 경제 생활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신문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업, 노사갈등, 예산 삭감, 물물교환, 학교에서의 사업놀이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 적용한 실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현장감 있는 질적 분석을 한 결과 경제생활 영역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켰으며 사회과 교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김옥희(2003)는 신문 활용 수업이 경제영역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지식 습득, 자료 분석 종합 기능, 가치 태도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를 정리해보면 사회과 교과 학습에서 NIE는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NIE 연구에서도 효과입증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최상희(2009)는 현행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뒤 실험 수업을 수행해 사회과 수업에서 학습 자료로서 신문자료 재구성 현황과 수업교사의 애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사들은 재구성한 신문자료를 활용해야 수업이 효율적이고,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 집중도가 향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만(2006)은 다양한 신문에 반드시 실려 있는 사실과 칼럼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사문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더하고 읽기, 쓰기의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사고력, 표현력,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텍스트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NIE 수업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 학습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특히 사회과 영역에서는 사회과 수업에 대한 흥미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접하며 살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사고의 틀을 가지며, 개방적이고 열린 교육의 틀을 요구하고 있다. NIE는 열린 미래사회의 교육방향에 부응하고, 수동적인 지식 습득을 벗어나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정보습득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국내외에서도 점차 NIE가 확산됨에 따라 NIE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이 다수 수행되어지거나 발표되고 있다. NIE와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1995년 이후 증가하는 모양새였지만 2011년부터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NIE 관련 학위논문들의 연구영역을 살펴보면 효과, 정책, 사업, 현황, 과제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해서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1) 교과 영역은 언어영역, 사회영역을 비롯해 최근에는 예체능 영역에서도 NIE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거나 시도되고 있다. 비교과 영역에서는 진로, 유아, 인성, 정보 활용 능력, 글쓰기, 토론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김향란, 2015).

NIE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을 연구영역별로 정리하면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교과영역을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예체능영역, 직업탐구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과영역은 E-NIE 영역과 기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NIE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영역 현황.

구분		유아	초등	중등	공통	계
교과 영역	언어영역	10	6	22	32	70
	수리영역	-	9	13	1	23
	외국어영역	1	14	36	24	75
	사회탐구영역	-	18	62	9	89
	과학탐구영역	-	7	26	6	39
	예체능영역	-	6	6	2	14
	직업탐구영역	-	5	6	-	11
비교과 영역	E-NIE	-	6	11	7	24
	기타	8	13	10	26	57
계		19	84	192	107	402

11) 국회도서관 전자자료검색에서 신문활용교육, NIE의 주체어로 검색을 수행하였다. 출처 강명선의 <신문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신문활용교육(NIE)이 중학교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NIE는 앞서 제시된 것처럼 신문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신문을 생산해내는 신문사와 가르칠 대상이 있는 학교 현장, 필요성에 의해 사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이 큰 축을 이룬다. 이처럼 신문사, 학교, 사교육으로 진행되는 NIE 활동의 접점을 유지하는 이들이 NIE 강사들이다.

지금까지 NIE에 대한 지원과 연구, 분석은 학교현장 NIE와 효과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신문사 NIE에 대한 연구도 점차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사 NIE에 대한 연구는 신문사 NIE 사업적 효과와 지원,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제주NIE학회의 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신문사에서 NIE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여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신문사 NIE 담당기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신문사 NIE 현황을 정리한 연구는 한국신문협회(2012)에 의해 이뤄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신문사 내에서 NIE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질 높은 NIE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NIE 지면을 제작하는 신문사의 절반(50.0%)이 '1명 이하의 기자'에 의존하고 있어 신문사가 운영하는 NIE 지면은 외부 집필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외부 집필진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바로 NIE 강사들이기도 한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NIE 지면을 만드는 신문사의 75%가 고정적 예산지원 보다는 상황별 사업비 확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규와 심영섭(2010)은 '신문사의 경우 미래의 독자확보를 위해 투자해야 할 당사자지만 신문업계의 열악한 환경과 NIE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²⁾ 그 밖에 제기되는 문제는 '입시와 논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면 제작 등이었다. 김동규와 심영섭(2010)은 '신문사 NIE가 신문사의 장삿속에 의해 특정분야로 전략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즉 NIE가 본래 취지 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2) 한국언론재단 '신문사NIE 활성화 방안 연구'.(2012)

NIE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신문에 담겨지는 기사의 완성도와 질적인 측면, 저널리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황유선·박진우·김위근(2011)은 ‘NIE를 하는 학교의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신문 자체의 질적 하락’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실제 제주지역 NIE 발전을 위한 포럼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제주지역에서 NIE를 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는 포럼에서 제주지역 NIE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사실보도를 바탕으로 정론을 담아내는 신문의 질 변화를 꼽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신문사에서 시행하는 NIE사업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김여옥(2009)은 ‘교육면이 신문사들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변질된 교육관을 조장하고 있으며 각 신문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낸 기사가 여과 없이 제공됨에 따른 편향된 주장이나 의견을 하나의 사실로 믿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NIE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언론재단(2006)이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바로 신문기사의 편향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제주지역에서도 단일 신문만을 지속적으로 구독하였을 경우 학생들의 인식이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교에서 신문활용교육을 기피하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신문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때 신문의 질적이 측면이나 신문저널리즘의 신뢰도가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일선 학교에선 다양한 신문을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신문협회 조사결과 신문의 NIE 지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 중앙 일간지는 편집국 이외의 다른 사업부서나 별도 법인 이름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방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NIE 지면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자들이 모여있는 편집국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중앙 일간지는 NIE 지면을 제작하면서 대부분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였는데, 주로 사교육계의 논술 전문 강사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에 반해 지역 일간지들은 대부분 외부 전문 인력 없이 편집국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점차 NIE 전문강사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일보와 전북일보 처럼 일부 신문사에서는 교육청이나 교사연구회와 같은 공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지역 언론사들

은 제주NIE학회 전문가그룹을 활용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NIE 업무를 부서별로 보면 편집국에서 담당하는 경우 인력 구조로 볼 때 이는 NIE를 독자적으로 업무분장하지 못하고 문화부, 편집부, 교육부 등 기존 업무에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문사가 1인 2역 이상을 해야 하는 기자를 NIE 업무에 배치하고 있어서 인력 구조에 문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NIE 담당기자들 역시 전문성 문제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연수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 기자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맡기는 것도 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NIE 기자에 대한 연수과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4) NIE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최근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으로 전개되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버킹엄은 미디어교육과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읽기(reading)와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하는 쓰기(writing)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그리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제작 모두를 목표로 한다(데이비드 버킹엄, 2004).”

미디어리터러시¹³⁾는 문자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출발하였으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그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개념 정립은 미

13) 오프컴(Ofcom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미디어리터러시란 ‘다양한 맥락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고 이해하며 창조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use, understand and creat media and commission, 2010)’이라고 정의한다. EAVI(유럽시청자권익위원회 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2009)는 통합개념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를 “정보 형태와 무관하게 다양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해석, 분석, 처리, 맥락화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출처: <http://actmediact.tistory.com/1125>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디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사회미디어교육과 학교미디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여러 주체에 의해 진행되어온 우리의 미디어교육은 교육주체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은 시민사회진영에서 축적한 미디어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며 변화,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디어교육을 이끌어온 교육주체로서 미디어교육 강사들에게 합당한 지위와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체적으로 NIE 관련 연구들은 NIE에 대한 인식이나 특정한 수업에서의 유용성,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NIE수업을 이용한 교수설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연구와 실증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학교, 사회,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NIE 사례와 효과, 정책, 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NIE’를 키워드로 학술논문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에서 키워드 검색을 시행한 결과 NIE연구는 신문사, 수용자,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점차 연구 분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E효과에 대한 연구는 어휘력, 사회성, 문제해결력, 창의력, 사고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5) 국내 NIE 강사 연구 현황

NIE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NIE 주체, 즉 강사와 지도자에 대한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전략연구소의 ‘NIE 강사육성 시스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2011, 김경환 외) 1건에 불과하였다. ‘NIE 강사육성 시스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NIE 전문 교육인력은 언론사와 언론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NIE 강사 자격증과 사회교육기관이나 단체가 발급하는 논술지도를 위한 NIE 지도사 자격증으로 나뉘고 있다. 언론관련 기관들이 발급하는 NIE강사 자격증은 신문의 보급 활성화를 일정부분 고려하고 진행되고 있으며, 기타 사회교육기관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NIE강사 및 지도사 자격증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이 놓여 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까지 고려한 NIE교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 방법을 체계화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NIE 전문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NIE 전문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첫째 기존교사에게 NIE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것이며 둘째 NIE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사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NIE 전문 미디어교육사 자격검정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육성 시스템을 제도화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목적을 둔 연구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자격검정제도 도입은 NIE를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을 검정하는 제도이다. 검정제도가 만들어지면 해당 자격의 취득자가 NIE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공인해줄 수 있고, 자격 검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정을 위한 교육과정, 교재개발, 시험 과정과 절차, 자격 유지 및 관리 기준이 수반되기 때문에 NIE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NIE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언론학, 교육학 등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언론학을 전공한 이들의 일자리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언론, 미디어 분야에 근무했던 이들이 재교육을 통해 강사로 육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NIE 강사들은 국가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경우에 비해 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NIE 지도법을 배운 이후 자율적으로 NIE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문사 NIE담당자에 대한 연구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NIE담당기자 연구 1건에 불과했으며 여건이 열악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 지속가능성 요인

(1)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환경, 개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환경·사회·경제·재정 등의 분야가 동등한 비중을 갖고 각 분야가 서로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요구이며, 통합적인 측면에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이해가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회의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여러 국제협약들에서 확인되었다. (장인호, 2013)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지속가능성을 법규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문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수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¹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인간 개발이란 개념을 보완하는 것으로 발전과정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 미래세대의 생활수준의 향상, 모든 생명체가 의존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혁신학교지원센터, 201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란 의미로 한마디로 ‘미래유지가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로마클럽이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간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12). ‘지속가능성’의 원래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표현이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연상시킨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매일경제)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12).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의 인류가 선택하고 있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되지 못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 인류의 발전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 화석에너지에 의지한 산업 활동, 양극화 우려가 있는 사회 구조, 국가 간 불평등한 관계와 같은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14) 프랑스헌법을 비롯하여 스위스연방헌법, 포르투갈헌법 등은 지속가능성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실현이 모든 국가기관과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로서 확인하였다.

인류의 발전은 계속될 수 있을까?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가 무한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물질적 자원은 유한하다. 지금과 같은 발전이 아무런 변화와 대안 없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고갈, 국가 간 분쟁, 사회적인 혼란,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더이상 발전을 못하거나 오히려 발전하기 전보다 못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발전이 지속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라고 부른다.¹⁵⁾ 지속가능발전은 이처럼 지속불가능한 발전의 형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지구에서 인간과 인간이외의 모든 생물이 함께 발전해가면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왔던 물질적 성장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발전 패러다임을 의미한다(조성화 외, 2015).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알고 이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인류가 함께 노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경제발전, 환경보존, 사회적 평화를 전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생산, 소비, 교육, 문화, 생활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혁을 전제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을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이삼열, 2008). 2002년 12월 제57차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데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주무 기관으로 유네스코를 선정하였다.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UNESCO, 2012).

최근에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형태의 발전 방식으로는 발전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감지되고 있다. 기존에 획일적으로 진행되었던 전통적인 방식

15) 이현정 ‘학교 혁신의 지속가능성 저해요인 분석’(광운대, 2016).

의 교육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이 변화하게 되면 국가와 사회의 변화는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힘은 교육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견지하면서 선순환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와 교육이 함께 긍정적 영향으로 주고 변화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변화가 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조성화 외, 2015).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이슈에 대해 접목할 수 있는 범위는 폭넓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결을 위해서 광범위 하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차세대 리더와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 상호 연관성을 찾아 넓게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기 다른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NIE사업의 지속가능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각되고 있는 도시재생, 환경보존, 사회적 기업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각 분야가 서로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요구인 만큼 본래 존립목적을 살리면서 그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요인들이 도시재생, 환경보전, 사회적 기업 등 논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들은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비시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학실, 2012). 지속가능은 이처럼 해당사업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 모두를 다 살려내야 하는 것으로 경제적 수익과 사회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현미, 2012). 지속가능에서는 지표설정이 중요하다. 도시재생, 환경보전, 사회적 기업 성과 등의 세부지표를 설정해 이러한 지표를 정책수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정희성, 2002, 최영출, 서순복, 2012)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환경보존, 사회적 기업 등 사업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사업들의 자원은 시장을 통해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보조금과 같은 공공영역

의 자원을 통해서도 동원되고 있다. 또한 기부금, 회비 등과 같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자원들이 동원되고 있다. 즉 시장과 공공영역 그리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구축해야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학실, 2012). 시장과 공공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자원동원을 통해 시장성과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성과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 없이 어떤 사업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해당 사업에서 수익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와 명분도 빛을 잃기 마련이다. 정부와 외부자원 등에 무한정 의존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재정적자를 들어 많은 정부와 자치단체 사업들이 축소 혹은 폐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이것은 공공영역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지속가능요인의 구성

지속가능 요인은 또한 인적요인, 조직요인, 외부환경적 요인(김태영, 201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와 어느 정도 열의를 유지하는가 여부가 사업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헌신성과 함께 조직의 성숙 정도도 지속가능요인의 큰 부분으로 자리잡게 된다. 조직의 유연성 및 상시성이 그것이다. 물론 이는 조직 존립의 목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고도의 조직 운영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의 조직 목적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해당 사업의 목표에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손민정, 남택진 2011). 외부환경적 요인은 인적요인과 조직요인을 상시 견인할 수 있는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게 한다. 사회적 합의와 지역사회의 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해당사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지속가능요인으로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합의, 공동체의 공유가치창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중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가치, 사명감, 자아 실현 등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해당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이현정(2016)¹⁶⁾의 ‘학교혁신의 지속가능성 저해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을 위하여 인간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교육하기를 원하였고 교육은 충실히 그 역할을 다 해 왔다면, 이제 교육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계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요구에 따라 환경을 제어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교육은 기술적인 면을 강조한 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기초교육을 중요시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양상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인간을 계발하는 형태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종종 지구적인 이슈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국내의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국한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지금처럼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지속가능발전의

16) 이현정(광운대 교육대학원, 평생다문화교육 전공. 2016.8)

문제는 국내적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시민으로서 평화, 인권, 사회정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수반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의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교사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65% 이상이 이 단어를 들어본 것에 비해 교사들은 68.2%가 지속가능발전이나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에 대비한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속가능성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서 환경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범주에 들어가는 교육을 교과 시간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는 교사들은 40%에 달하고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일부 교사들과 학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의 지속성, 학교의 지속성,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많은 교육적 시도를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례들이 발굴되고 보급되게 되면 유사한 시도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선경, 2008).

(3)지속가능요인의 구성에 대한 NIE 적용

지속가능성 요인을 NIE에 접목시킬 경우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요인에 대한 개념과 NIE활동을 결합함으로써 NIE활동의 지속가능한 요인을 찾을 수 있다면 향후 제주에서의 NIE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요인에 대해 각 분야마다 구성요소를 다르게 정리하고 있다. 지속가능요인을 인적요인, 조직요인,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나누는 김태영의 연구를 적용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NIE학회 사례에 적용해보면 인적요인은 회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직요인은 정관, 조직표 등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또 외부 환경적 요소는 정부정책 등 제도적 상황과 신문사와의 협업구축,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지속가능요인으로만 NIE교육의 지속가능요인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요인으

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가 대부분 도시, 사회적기업, 공동체, 교육 등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요인을 찾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속가능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요인 연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우선 NIE 학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인을 찾고, 회원 뿐 아니라 제주에서 NIE활동을 하는 강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지속가능한 요인을 제주NIE학회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내외부적 요인으로 도출 가능한 요인도 있지만 신문이 매일 내용이 바뀌고 보도되는 기사들이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해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연계성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 NIE활동의 특이성도 또 하나의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사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요인을 찾아보는 것은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3) 제주지역 NIE 활동 현황

제주에서 이뤄진 NIE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제주에서의 NIE 활동에 대한 분석한 연구자료도 없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NIE 사업에 대해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 가운데서 10년 동안 사업을 지속해온 기관은 지역의 신문사였다. 신문사에서 전문가의 교육내용을 신문에 게재하는가 하면, 신문만들기 공모전 사업, 작품 전시회, 찾아가는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속가능요인을 찾기 위해 심층면접에 참여한 NIE강사들은 제주지역에서 NIE가 10년 넘게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외부적 요인으로 신문사의 지속적인 협업을 들기도 하였다. 특히 제주지역 신문사 한라일보가 걸어온 NIE 사업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면 지역신문사와 NIE강사들의 협업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제주지역 신문사의 NIE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표 5 .제주지역 신문사 NIE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사업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NIE학회 공동으로 NIE기획 시작 -제주NIE학회 회원 한라일보NIE 자문위원 위촉 -영역별 NIE 수업 기사 연재 -지상 강좌 및 봉사활동 -'관찰력을 키우는 NIE''사고력을 키우는 NIE' '창의력을 키우는 NIE''현장으로 찾아가는 NIE' 구성 -결과물로 NIE 전시회 첫 개최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국제자유도시(JDC) 후원 이끌어냄 -이호아동센터 행복나눔아동센터 2곳 교육 활동 -신문을 활용한 '창의적 논술' 연재 - 제주에서 처음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공모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광초 NIE 축제 참여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 개최 - '한라NIE카페(http://cafe.daum.net/halla-nie)' 개설 - '201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 콘테스트 지원사업' 선정 - 한라일보사 '찾아가는 소외계층·소외지역 NIE 교실' 운영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IE 연재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전(9월) -전시회,축제(11월) -남읍초등학교 NIE 정규수업 -이호아동센터와 빛과소금 아동센터 NIE 봉사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을 찾아가는 NIE 이동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전 확대 -'인성교육 NIE' 연재

한라일보사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교육사업으로 제주NIE학회와 공동으로 NIE 기획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기획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NIE학회 회원들을 NIE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에 앞서 담당기자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NIE 지도자과정(1년 과정)을 수료하고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기자도 전문가로서 전문가그룹과 함께 매주 회의를 통해 집필방향과 수업진행방향, 수업지도안, 실제 수업 결과물을 함께 게재하였다. 특히 창의력, 관찰력 등 영역별 NIE 수업과 교과와 연계한 학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제주지역NIE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년 동안 자문위원과 담당기자는 지상강좌 내용을 구성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이 찾은 곳은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서귀포시대륜동주민센터, 유진재활센터 등이었다. 신문지면 구성도 '관찰력을 키우는 NIE' '사고력을 키우는 NIE' '창의력을 키우는 NIE' '현장으로 찾아가는 NIE' 등으로 다양하게 하였다. 특히 이는 지역 신문사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NIE전문가들이 공동으로 NIE 활성화에 함께 기여한 첫 사례로 꼽혀 전국 신문업계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이같은 결과물로 NIE 전시회도 제주에서 처음 열리게 되었다.

2010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JDC)가 주최하고 한라일보사·제주NIE학회가 함께 주관해 주1회 NIE 지면강좌를 운영하였다. JDC와 함께 이호아동센터와 행복나눔아동센터 2곳을 찾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전개하였다. NIE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는 신문을 활용한 '창의적 논술'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였다. 상반기에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창의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연재하였다.

같은 해 제주에서 처음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공모전'이 열렸다. 공모전은 NIE 활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에서 처음 학교단위 NIE축제가 열린 남광초 NIE 축제현장에 한라일보 NIE팀은 신문활용 책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가 12월 11~12일 이틀동안 신산갤러리에서 열렸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2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다양한 도내 NIE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기사도 소개되었다. 제주에서 NIE를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추천받아 기자가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신문기사와 뉴스를 활용한 인성교육, 평생교육, 교과연계수업, 장애인 사회적응 수업 등 즐거운 실험을 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였다. 해마다 이뤄진 기사 연재를 위한 주제는 사회적 이슈와 연계해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NIE 활동 현장에 대한 소개기사는 초·중학교부터 유진재활센터·서귀포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교사연수, 소외지역 찾아가는 NIE, 교사연수, 학부모 교육 등을 소개하였다.¹⁷⁾

온라인 커뮤니티 '한라NIE카페(<http://cafe.daum.net/halla-nie>)'도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소외계층·소외지역 NIE 교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모한 '201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 콘테스트 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사업은 한라일보 NIE와 신문의 교육적 기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가장 뜻있는 행사는 소외지역 장애청소년들과 NIE를 활용한 '자아성장'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신문사에서도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격려가 사업 내내 이어졌다.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라일보사가 마련한 '찾아가는 소외계층·소외지역 NIE 교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모한 '201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 콘테스트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도내에서 NIE 소외지역과 계층을 찾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신문 활용 NIE 교육효과 제고', 'NIE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번 사업은 한라일보 NIE와 신문의 교육적 기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11년에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사진·광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활동지를 단계별로 생각을 춤추게 하고 활동지 내용을 월 2회 지면에 게재하였다. 공모전(9월) 전시회, 축제(11월)가 이뤄졌다. 자율학교인 남읍초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을 통해 주1회 전학년이 NIE와 만남을 가졌다. JDC의 후원으로 이호아동센터와 월평 빛과소금 아동센터 등 제주지역 아동센터에서 NIE 봉사활동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가 이동전시회로 진행되었다. 전시작품들 중에서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았던 작품들을 선별해 학교,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센터 등 요청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일정기간 전시하고 해설함

17) 한라일보 NIE 사업 소개 내용.(2010, 2011, 2012년 보도)

으로써 NIE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7곳을 선정해 이뤄진 이동전시회와 전문가 특강은 큰 호응을 얻었다. 초등학생에 한정하였던 공모전은 중등부까지 확대하였다. '인성교육 NIE' 연재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13년에는 '진로와 NIE'를 주제로 전문가연재가 이뤄지고 'NIE야 놀자'기획도 추가로 이뤄졌다.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해봐요' 코너도 운영되었다. NIE 공모전은 '영자신문활용 NIE'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찾아가는 NIE 이동 전시회'도 7곳에서 이뤄졌다. 10월 26~27일 신산공원과 영상미디어센터 전시실에서는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와 현장 대회가 열렸다.

2014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제주영상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라일보가 공동주관하는 2015년 지역미디어교육센터 운영사업 '몬딱 맹글어! 제주어신문제작단'이 운영되었다. '몬딱 Dream 청소년 NIE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몬딱 맹글어! 제주어신문제작단' 교육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12차시로 진행되는 교육은 제주역사·문화 교육과 더불어 신문시스템의 이해, 제주어의 이해 및 제주어 배우기, 기사작성 방법, 취재의 요령과 실제, 취재 실습, 기사 작성, 기사편집 및 신문제작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주어를 활용한 NIE 프로그램은 지역신문컨퍼런스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라일보 NIE 공모전은 'JDC와 함께하는 NIE 공모전' '제주어 활용 주제신문 만들기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2015년 신문 연재는 '인성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NIE 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것은 2011년 4월이다. 제주시교육청이 NIE 교사연찬회를 갖고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연찬회 이후 제주시교육청 NIE 교사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담당 장학사는 "NIE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연찬회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교사연구회 회원으로 참여하였던 한 교사는 이후 제주NIE학회에도 가입해 활동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학회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제주NIE 강사와 학교현장 교사, 신문사 NIE 담당 기자, NIE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교수 등이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년째 NIE 교육활동 중심학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강화시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교양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NIE사업 연도별 예산은 2015년에 2000만원을 편성한 이후 3500만원까지 편성되기도 했다. 2017년 제주도교육청 NIE 중심학교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표 6 제주도교육청 NIE 사업 연도별 예산.

연도	예산(원)	지원학교	비고
2015	20,000,000	23교(초 13, 중 5, 고 5)	최초 사업
2016	35,000,000	26교(초 10, 중 10, 고 6)	
2017	31,200,000	27교(초8, 중8, 고11)	

표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년도 NIE 중점학교 지원.
(초 8개교, 중 8개교, 고 11개교)

초등학교	서귀포초, 새서귀초, 신례초, 토산초, 토평초, 도련초, 신광초, 장전초
중학교	제주서중, 노형중, 신업중, 탐라중, 한라중, 대정중, 서귀포대신중, 오현중
고등학교	대기고, 삼성여고, 오현고, 제주여고, 한림공고, 서귀포산과고, 제주외고, 제주제일고, 제주중앙여고, 표선고, 한국뷰티고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요인을 바탕으로 제주NIE 교육의 지속가능요인과 동시에 저해요인을 찾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NIE학회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제주NIE 교육이 지속가능한 내부적 요인은 무엇인가.

1-1 인적 요인

1-2 조직 요인

<연구문제 2> 제주NIE 교육이 지속가능한 외부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2-1 지원제도와 정책

2-2 사회적분위기

<연구문제 3> 제주 NIE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NIE 학회와 제주에서 NIE 강의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로 선정하였다. 대상들은 NIE 활동을 5년이상 한 강사로 한정하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현황조사 연구(2012, 김동일 외)에 따르면 NIE지도사는 대중매체 일반의 특성과 신문의 구성요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문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 실행하는 전문가이다. NIE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NIE협회, 조선일보, 이태종NIE논술연구소, 미래NIE논술연구소 등에서 7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사회교육기관 중 대학부설 평생교육기

관의 경우 일반인 재교육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NIE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NIE지도사 자격시험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국내의 NIE 강사 육성 기관으로서 가장 공신력 있고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NIE 강사 육성을 위해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과정과 NIE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NIE 강사를 양성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로 선정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보니 제주NIE학회 회원들 중 일부가 연수를 거쳐 언론재단 NIE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사 과정을 마친 후 방과후 NIE지도교사로 활동하거나 도서관 자원봉사 및 특강 NIE 공부방 운영, 문화센터와 복지관에서 NIE 전담강사 활동, 학부모로서 자녀 NIE 지도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참여율이 높은 상황이다. 다른 지역 NIE 지도사 과정이 자격시험을 위한 커리큘럼이 대부분이지만 제주지역은 자격시험보다는 학회 가입이후 신입회원교육,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점차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NIE 현황은 전국에서도 특이한 사례로 꼽힌다. NIE를 학교현장에서 수업에 반영하는 교사가 아니라 NIE강사들로 구성된 제주NIE 학회의 활동이 신문사NIE 사업과 결합하는 형식도 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제주 NIE 활성화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¹⁸⁾ 특히 NIE가 학교 현장과 교사가 아니라 제주의 논술강사 등 NIE 강사들이 모인 제주NIE학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NIE활동을 하고 있는 지 질적 심층면담을 통해 향후 제주NIE 학회의 미래와 제주지역 NIE에 대한 미래를 제언하고자 한다. NIE 성과와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NIE교육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하기는 쉽지 않다. NIE 담당자들의 현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NIE 담당 주체들에 대한 연구가 NIE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NIE 담당자이자 강의를 하러 다니는 현실에서 한계에 봉착할 때도 있다. 담당자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또 종이신문을 활용한 NIE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

18) 제7회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 전시회 '성황'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펼칠 수 있었던 자리"(한라일보 2015년 11월16일자 보도,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47599600520221044>).

하는 것도 개선해야할 점으로 꼽힌다. NIE 담당 주체들에 대한 이 연구가 NIE 효과에 대한 연구와 차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은 NIE 연구자들의 헌신성, 사명감 등에 기인한 것이다. 비관적인 현실이지만 ‘희망 찾기’의 과정이다. NIE 생산자들을 놓고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능한가. 이 연구를 통해 NIE 강사, NIE 담당기자 등 NIE 분야 종사자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이 뒷받침되고 NIE 연구의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바란다.

2006년 구성된 NIE학회는 신문활용을 위한 교육 및 미디어교육 연구를 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NIE 연구단체이다. 처음 명칭은 ‘NIE 연구회’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NIE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였던 강사와 NIE지도자 과정 수료생 가운데 열의를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1기 회원 가운데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강00, 허00, 이00, 오00¹⁹⁾ 등 4명이다. 이후 지도자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설되면서 지도자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NIE학회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최초 1기 회원들은 10명이었으나 직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학회활동을 중지하거나 탈퇴한 회원도 있다.

1기 회원들은 전원이 2009년 한라일보사 NIE 연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한라일보와 함께 2009년 제1회 NIE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라일보에 NIE에 대한 사례를 연재하고 제주NIE학회 명칭으로 단체등록을 하였다. 전시회에는 1000여명이 방문하였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전시기간(2일)이 짧았다는 의견과 농어촌 및 서귀포시 지역에서 전시회 개최 요청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사업에 공모해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NIE’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동지역을 방문해 학부모교육과 어린이 교육을 병행해 마련하였으며 소외계층으로는 서귀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후에도 2011년에는 제3회 전시회를 비롯해 한라일보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연재를 이어갔으며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다. 2012년에는 제4회 전시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찾아가는 NIE 이동전시회’를 주관하였다. 이 기간동안 제주NIE 학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규 회원들의 가입

19) 연구대상 강사들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기재하였음을 밝힌다.

도 이어졌다.

2013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체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전에는 신문사와 협업사업이 전부였지만 ‘제1회 제주NIE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신산공원에서 참가자들이 신문을 펴들고 현장에서 제시한 주제에 맞춰 NIE 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NIE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제주영상미디어센터 후원 중등NIE교육도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사업으로 제주NIE대회,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 한라일보 연재, 찾아가는 NIE 이동전시회(7개교), 영상미디어센터 NIE 교육, 제민일보 생각이 자라는 NIE(28개교)를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제3회 제주NIE대회, 제7회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 제주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사업, 한라일보 연재, 찾아가는 NIE 이동전시회(7개교), 영상미디어센터 ‘몬딱드림 NIE 교육’ 제민일보 NIE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제주NIE학회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국, 기획국, 행사국, 교육국, 편집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7년 현재 9기까지 기별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 통합스터디를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면 회원 재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016년으로 창립 10년을 넘어섰으며 1기 회원들은 10년 넘는 동안 NIE학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NIE 학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NIE 강사를 포함해 5년 이상 제주지역에서 활동해 온 NIE 강사들로 선정하였다. 제주NIE학회를 거쳤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으면서 제주에서 수년동안 NIE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과 심층면접, 전화면접, 집단면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NIE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들과의 면담 내용은 NIE학회 들어온 이유, NIE 활동 경험, 현재 활동 여건, 향후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 제언 등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NIE 강사에 대한 인터뷰를 1, 2, 3차에 걸쳐 진행한 결과 이들을 그룹으로 분류해 봤다. 직접 들려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NIE 강의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NIE 학회 등 NIE 강사들은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룹화의 과정은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뤄졌다.

표 8. 면접대상 그룹 정리

구분 \ 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지속가능성 인식	NIE만으로도 충분히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NIE가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룹(긍정 평가 그룹)	NIE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양한 것과 결합한 NIE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그룹(보조적 평가 그룹)	NIE 활동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NIE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직종 종사하는 그룹(전향 그룹)
면접 대상	4명(오00, 김00, 박00, 허00)	4명(강00(*), 강00(**), 강00(***) ²⁰⁾ , 오00)	2명(김00, 곽00)

처음에는 제주NIE학회 회원에 한정해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였지만 강사들과 심층면접을 거치면서 학회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은 A, B, C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그룹은 NIE만으로도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룹으로 지정한다(긍정 평가 그룹). B그룹은 NIE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논술, 독서, 성적향상 등 다양한 것과 결합한 NIE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그룹이다(보조적 평가 그룹). C그룹은 NIE 활동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NIE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향 그룹). 이들 3개 그룹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주지역 NIE 활동에서 유의미한 지속가능성 요인을 찾아 보았다. 제주NIE 학회의 태동을 주도하였던 강00 고문과의 심층 면접도 진행하였다.

A그룹은 오00, 김00, 박00, 허00, B그룹은 강00(*), 강00(**), 강00(***), 오00 C그룹은 김00, 곽00을 면접조사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10명이다. 연구자는 지

20) 면접대상이 동일 성(강)을 갖고 있어서 *, **,***로 구분한다.

속가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지만 그룹별 구분은 모호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A그룹으로 분류된 강사들의 경우와 B그룹으로 분류된 강사들의 경우 유사한 형태의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별 지향점과 각자의 활동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밝힌다.

(2) 심층면접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NIE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현장에서 NIE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담당 주체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연구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며, 제주NIE학회 회원들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NIE 강사 경험의 의미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전형적 사례선택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들과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의 다각화를 위해 인터뷰 텍스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전화 인터뷰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선 면접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기초조사를 통해 표집 회원을 선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하는 연구대상은 제주NIE학회 회원 중 5년 이상 활동을 지속해온 회원을 그룹으로 분류해 대상으로 삼았다. 강00(고문) 강00(종합학원 운영) 오00(논술 NIE 교습소 운영) 김00(NIE 공부방 운영) 김00(돌봄교실 강사) 박00(NIE 방과후 강사) 곽00등 모두 10명이다. 선 면접이 이뤄졌으며 면접이후 그룹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면접방법은 개별심층면접, 집단면접, 전화면접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4장 연구내용

NIE 학회의 지속가능성 요인을 가지고 긍정적 요인과 저해 요인을 함께 살펴 보았다.

제주NIE 학회 등 NIE 강사들은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편의상 A, B, C 그룹으로 나누었다. A그룹은 NIE만으로도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룹으로 지정한다(긍정 평가 그룹). B그룹은 NIE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논술, 독서, 성적향상 등 다양한 것과 결합한 NIE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그룹이다(보조적 평가 그룹). C그룹은 NIE 활동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NIE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향 그룹). 이들 3개 그룹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주지역 NIE 활동에서 유의미한 지속가능성 요인을 찾아보았다. 제주NIE학회의 태동을 주도하였던 강00 고문과의 심층 면접도 진행하였다. A그룹은 오00, 김00, 박00, 허00, B그룹은 강00(*), 강00(**), 강00(***), 오00 C그룹은 김00, 곽00을 면접 조사하였다.

1) A그룹 NIE 강사 면접

A그룹은 NIE만으로도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룹으로 지정한다(긍정 평가 그룹).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은 오00 회원이었다. 인터뷰 목적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문답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2017년 4월4일 오후 5시 오00 회원이 운영하는 논술교습소에서 진행되었다.

오00 회원은 ‘제주NIE학회’의 출발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NIE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 방과 후 교실을 비롯해 평생교육원, 도서관, 문화의집, 새마을문고, 주민센터, 문화센터, 주부교실 등지에서 초등생·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제주의 외곽지역에 있는 이호동에서 논술교습소를 운

영하고 있다. 도리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오00 회원은 NIE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이를 도리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남다른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은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함께 가진 지역으로 저소득 가정도 적지 않은 곳이다. 오00 회원은 방과후 교실에서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과 NIE수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 글씨도 못쓰던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마음도 열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오00 회원은 아이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있다. 어려운 아이들의 멘토링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 활동경력은 유진장애인재활센터 신문교육, 한라일보 NIE 자문위원²¹⁾, 제민일보 NIE 강사, 제주NIE학회장을 역임하였다.

“꾸준한 신문읽기 5년차에 기사의 흐름과 맥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NIE를 하면서 신문을 유심히 보게 되었고 나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웠다. 세상의 일들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치인의 이름을 알게 되고, 정치에 관심이 없던 나 자신이 정당을 알게 되고 사건 사고가 눈에 보이고 다른 나라의 일에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나한테도 연관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수업할 때는 사진, 표제를 활용한 수업을 하면서 기법에 대해 고민하였지만 몇 가지를 하다보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5년 이상 신문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성장을 보게 되었다. ‘우물 안 개구리’였다가 신문을 읽으면서 강물과 바다를 알게 된 셈이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노동과 정치와 사회문제 등이 보였다.”

21) 한라일보사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교육사업으로 제주NIE학회와 공동으로 NIE기획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기획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NIE학회 회원들을 한라일보NIE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기자도 전문가로서 전문가그룹과 함께 매주 회의를 통해 기사 집필을 위한 방향과 수업의 진행방법, 수업지도 설계안, 수업 결과물을 함께 게재하였다. 특히 창의력, 관찰력 등 영역별 NIE 수업과 교과와 연계한 학습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내 NIE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년동안 자문위원과 담당 기자는 지상강좌 내용을 구성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들은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서귀포시대륜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유진재활센터 등에서 열린 소외지역·계층 찾아가는 NIE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NIE 지속가능요인을 유추해 보면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요인으로 제시됐던 인적, 조직적, 지원제도와 정책, 사회적 분위기로 설명하는 것이 NIE 활동 측면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다. OOO 회원의 면접을 통해 파악된 지속가능 요인은 첫째 자아성장, 둘째 지속적 신문 읽기의 필요성, 셋째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향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OOO 회원은 글쓰기와 책읽어주기 수업을 하던 예전수업과 자신이 NIE를 배우고 난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였다. NIE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질문하든 그것의 맥락을 알기 때문에 답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OOO 회원은 신문사의 도움도 강조하고 있다. 신문을 만드는 생산자인 신문사가 다양한 NIE사업을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또 독서는 연계성이 없어도 되지만 NIE는 연계성이 있어서 아이들과 지도자가 공동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NIE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신문읽기가 가장 중요하고 신문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기법수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고교생 대상 수업일 경우 사회현상 분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NIE의 네 번째 지속가능요인은 신문사의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OOO회원은 NIE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있다. 면담을 통해 교육을 시작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까지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입식 학습지 형태로 하지 않고 토론식 대안교육 방법으로 하고 있다. 교재는 신문과 책이다. NIE 교육의 목표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부모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 관점으로 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인지 초등학교 때 만났던 교육생 80%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교육에서 NIE의 활용은 가치가 있다. 독서는 특히 장애인 교육에서 한계가 있지만 NIE는 다르다. NIE는 사진만 오려서 수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NIE 장애청소년 교육에서 더욱 효과를 보는 것은 장애청소년과 비 장애청소년이 함께 하는 교육이다. 어른이 가면 ‘시키는 교육’이 되지만 청소년이 가면 ‘함께 주고받는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식교육에서 신문을 가지고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은 장애인식에 대한 변화가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피해 도망가지 않는다.”

오 00회원은 다섯 번째 지속가능요인으로 ‘경제적 소득’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지에 따라 NIE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시설투자가 적다는 것이다. 1인당 교육비는 평균 7만원으로 상황에 따라 차등해서 받고 있다. 모둠으로 하는 그룹교육이기 때문에 10개 그룹수업만 받아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현재 세 번째 자녀를 보내는 경우 무료로 교육을 해주고 있다. 지도자를 믿고 3명을 보내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였다.

“NIE 강사들은 아이들의 생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은 무료로 교육을 해 주고 있다. 사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없으면 된다’는 말은 ‘밥상’에서는 틀린 말이 될 수 있다. 식재료가 더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NIE 교육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신문은 비싼 교재가 아니다. 독서수업은 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NIE 교육은 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부모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주기 보다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더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 NIE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매번 달라지는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부족하다. 고등학교 수업의 경우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통해 진학과 진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제시한 여섯 번째 지속가능요인은 NIE 지도자로서의 보람이다. 자기 자신의 성장이 우선이고, 아이들의 성장은 그 다음이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NIE를 통해 만나는 아이들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다. 독서와 달리 NIE는 지속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지속가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인식

부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오00회원이 제시한 NIE 교육의 지속가능 요인은 첫째 자아성장, 둘째 지속적 신문 읽기의 필요성, 셋째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향, 넷째 신문사의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 다섯째 경제적 소득 창출, 여섯째 NIE 지도자로서의 보람이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A 그룹의 또 다른 강사는 김00 강사로 NIE학회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개인적으로 NIE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현재 NIE와 독서논술교육을 표방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경우 독서와 NIE를 함께 교육하고 있는데 인기가 높아 신청자들이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00 강사는 앞으로 학교에 NIE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NIE에 대한 애정이 높은 사람이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면서 스스로 만든 교육과정으로 수업교재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창의성에 대한 NIE의 효과를 설계한 논문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하였다.

“제주NIE 지속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NIE 활동을 지속해 온 것은 10년째이다. 나 자신의 지속가능성은 확실히 있지만 학교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매일 신문을 보면 매일 아이들과 함께 이것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들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의 핵심 요인이다. 신문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는 책을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중간에 읽지 않지만 신문은 비교적 짧고 편하게 읽는 만큼 아이들이 오히려 NIE 활동을 좋아한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관심이 커진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너무 수업이 많아서 지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속할 수밖에 없다. 매일 신문을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강사들도 아이들도 필요성을 느껴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는 없다. 제주NIE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도, 기법을 배우려고 한 것은 아닌가? NIE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지속할 수 밖에 없다. 나만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다. 일하는 것에

비해 수입도 적은 편이 아니다. 자격증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다. 이는 NIE활동을 통한 경제적 도움이 확실하다는 근거가 된다. NIE를 가지고 월 9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다. 앞으로 교재연구를 하고 싶다. 그것의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핵심은 창의력이다. 다르게 교재를 만들고 다르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게 경쟁력이다. 어릴 적 들로 산으로 뛰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였던 것이 창의력의 원천이다. 지식습득은 쉽게 하지만 창의력을 건드려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직접 교육을 진행하면서 적어도 2년6개월은 해야 창의력의 구성요소 4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도출해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한 가지 사례를 말하면 한 교육생의 엄마가 수학능력시험 전문 학원 국어 강사였다. 그런데 그 엄마는 자기의 아이들과 조카까지 NIE를 배우도록 하였다. NIE를 꾸준히 하였던 큰 아이는 수능국어를 대비한 학원에 보내지 않았지만 국어과목 만점을 받았다. NIE는 꾸준히 해야 한다. 시험점수 때문에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것이 NIE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NIE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본 엄마로서의 자긍심도 큰 상황이다. ‘NIE를 하는데 왜 국어점수가 오르지 않을까요?’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한다. NIE는 사고력과 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과목을 잘 한다면 NIE의 효과일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효과에 대한 연구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김00 강사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지속성’을 우선 요소로 꼽았다. 또 제주에서 NIE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지속적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00강사가 말하는 지속가능요인은 첫째 자아성장, 둘째 창의성, 셋째 NIE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성적향상, 넷째 경제적 도움 등이었다. 무엇보다 김00 강사는 NIE의 효과 가운데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실천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NIE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하는 것은 단기간에도 가능하지만 창의력을 두고 볼때 창의성의 개념, 유창성, 정교성까지 완성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교에서 두시간정도

해달라고 하면 사실상 맛보기, 이벤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흥미를 이끌도록 해주면 NIE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계속 찾게 하고 지속성을 갖게 하는 것은 ‘개인적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NIE의 필요성을 알면 수요가 분명 있고 수업 주제도 무궁무진하다. 독서와 NIE를 하려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NIE만 해달라는 아이들도 있다. 책은 읽다가 힘들면 중단하고 읽지 않는다. 신문기사는 비교적 짧고 중간에 그만 읽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준비 없이 와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책은 안 읽지만 신문을 읽는 남자아이들이 있다. NIE는 너무 소중한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어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 있었다. 오해하는 시선으로 힘든 일도 있었다. NIE학회를 나와서 더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NIE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공동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김00 강사는 NIE학회 활동을 하였었지만 현재 회원은 아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NIE 강사들의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인간적 네트워크의 지속성’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김00 강사의 경우 인간적 신뢰도 문제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지금은 홀로서기에 성공하였다. 그의 힘든 과정을 생각한다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인간적인 네트워크 및 신뢰’가 지속가능요인의 하나로 작용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만난 강사는 박00 제주NIE 학회 회원이다. 박00 회원은 NIE를 시작한 것은 다른 면접대상보다 짧지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모전 수상작품을 지도한 경력도 있다. 박00 강사는 신문사의 지원이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근 신문사에서 NIE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신문사, 언론단체 주최하는 NIE를 하는 대회와 공모전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읍면지역 등 소규모 학교에서도 신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문사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였다.

박 00회원 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지속가능 요인은 첫째 NIE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NIE의 자료가 되는 신문을 생산하는 신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활동을 마무리 해야 하는 학교 수업의 특성상 NIE 수업이 적합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교에서 독서논술 방과 후 수업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45분으로 독서논술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그 책의 줄거리를 말해주고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독서논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신문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더 좋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문기사는 그날의 소식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말할수 있기 때문에 짧은 수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5년간 서광지역 어린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NIE는 신문으로 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것으로 NIE 역할이 귀결되어야 한다. NIE로 자신이 변화된 계기가 되었다. 별 불일 없던 내 자신이 NIE로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NIE를 포기할 수 없다. 아이들이 NIE를 경험하고 다양한 대회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었다. 끼가 너무 많은 아이의 다양한 가능성을 NIE로 건드려 준 것이라고 본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할까봐 걱정되었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아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그 값을 하는 것이 NIE다. 미술을 하면 미술과 연결할 수 있고, 음악을 하면 음악과도 연결할 수 있다. 내가 만약 체육교사라면 체육과도 연결할 수 있다. 전문적인 하나의 학문이 될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어떤 것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이다. 생계가 달린 일이고, 이 직업을 책임지려고 하는 일이고, 이것이 생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함이 있다.”

다음 만난 인터뷰 대상은 허00 제주NIE 학회원으로 독서논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NIE 학회 1기 회원으로서 10년 넘게 NIE와 독서, 글쓰기를 접목한 공부방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조금씩 수업을 줄이고 있지만 독서를 바탕으로 NIE만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NIE를 하는 경우도 다소 필요하지만 재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는 요인이 된다. NIE만으로도 성장하기 보다는 독서 등 다른 것들로도 활용할 수 있다. NIE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NIE가 융화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독서교육은 이미 폭넓게 알려져 있어 고정적인 수요가 있지만 NIE는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나온 게 없었다. 독서나 역사는 정형화된 방법이 있지만 NIE는 없다. 학부모들도 직접 보고 듣고 느끼지 않으면 수요창출이 힘들다. 알리지 못한 탓도 있지만 NIE가 자리를 못잡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독서와 NIE가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 문학작품에서 어머니를 형상화하였다고 할 때 신문으로 하면 정확한 뜻을 알려준다. 모든 아이들에게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으려 한다. 지속적으로 하면 단어의 정확성에 주목한다. NIE를 경험하였던 아이들은 하나같이 중학교 가면 공부가 너무 쉬워졌다고 한다.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사고를 형성하는데 독서교육을 활용하고 정확한 지식을 알려 주기 위하여 NIE를 활용한다. 초등학교 1학년때 부터 독서와 NIE를 지속적으로 한 아이가 있다. 교사였던 그 아이의 엄마는 ‘사회성이 부족하였던 아이가 이곳에 올때만 웃는다’고 말하였는데 그 아이의 변화를 보면 독서와 NIE의 힘이라고 본다. 독서교육을 하는 아이들이 NIE를 접목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예를 들어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신문에 나오면 그 뜻에 대해 정확히 알도록 하고 그러면서 논리성이 생긴다. 특히 사춘기 때는 논리성이 발달하는데 그시기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허00 회원 면접을 통해 분석된 NIE 지속가능 요인은 첫째 결합용이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독서교육과 결합 하였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A그룹이 면접을 통해 제시한 지속가능성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강사 자신의 자아 성장을 통한 성취감 (2)지속적 신문 읽기의 필요성 (3)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향 (4) 신문사의 NIE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 (5) NIE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취 (6) NIE 지도자 활동을 통한 교육자로서의 보람 (7)창의성 (8) NIE를 활용한 자녀교육 (9) 강사들의 인간적인 네트워크 및 신뢰 (10) 다양한 교육과 결합용이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NIE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룹인 만큼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반면 A그룹이 면접을 통해 제시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그룹은 지속가능요인이 강한 반면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극복해 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B그룹 NIE 강사 면접

B그룹은 NIE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논술, 독서, 성적향상 등 다양한 것과 결합한 NIE 활동이 지속가능성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그룹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연구과정에서 그룹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룹으로 분류하였지만 전통적인 종이신문을 활용하는 NIE 활동에 대해 다양한 매체로 확대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복합적 평가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다.

B그룹 중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주NIE 학회에 소속된 강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연구대상은 강00 강사이다. 사실상 강00 강사는 제주NIE학회 태동부터 제주NIE학회가 제주지역에서 신문사를 비롯한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한 구성원이다. 현재까지 제주도 대표적인 NIE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철학, 문학에 대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강00* 강사는 시인으로 1994년 이후 독서 논술 NIE를 통해 책과 세상에 대해 읽고 쓰고 토론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NIE 지도자과정 강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독서 글쓰기 NIE 전문강사이며 그 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강의를 하고 있다. 제민일보에 ‘책으로 여는 시사 통합논술’ ‘다매체를 활용한 창의력 글쓰기’, 한라일보에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를 연속적으로 게재하였다.

강00* 고문이 NIE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독서 논술 글쓰기 강사로서 1998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에서 NIE 교육에 대한 강의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 당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하던 중이라서 NIE는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글을 어떻게 쓰게 할지 고민하던 중 NIE는 생각거리를 제공하기에 좋은 재료였으며 글감과 글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 신기한 도구상자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접근이었다. 이후 NIE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더욱 널리 알려야겠다고 판단해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NIE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는 NIE에 대해 고정회되고 단편적인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NIE를 떠올릴 때 신문을 오리고 붙이는 수업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신문활용교육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신문의 사진이나 글자를 오려붙이고 말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NIE의 실체는 아니다. 그것은 신문과 친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한 수업방식 때문에 생겨난 오해일 것이다. 이는 NIE에 대한 단면만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이다. NIE는 세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사회교과서 역할을 한다. 내가 밭 딛고 사는 이 땅의 이야기부터 먼 아프리카까지 중요한 삶의 이야기를 매일 들여다보며 궁금해 하고 왜 그럴까 고민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게 하는 것이 NIE다. 즉 세상사에 관여하고 동참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이 NIE다. NIE는 자기 삶의 쫓대를 세우는 교육이기도 하다. 수없이 쏟아지는 문구와 구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따지고 가려내어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주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NIE는 함께 사는 사회의 건강한 씨앗이 되게 하는 교육이다. 신문에는 세상의 별의별 사건과 물건과 숫자로 가득 차 있다. 그것들의 아우성을 귀 기울여 듣다보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이를 잘 따져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강00*은 현재 제주NIE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강00* 고문이 제시한 내용들이다. NIE학회를 탄생시킨 사람으로서 현 실태에 대한 제언도 내놓았다.

“오랫동안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과 NIE를 함께 하면서 감동적인 사례를 많이 보았다.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던 한 학부모는 NIE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열렸다고 하였다. 신문일기를 매일 쓴 소감을 발표하던 교육생이 ‘우리 사회가 좋아지려면 투표를 잘 해야 하는 것이네요’라고 말하였던 기억도 새롭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주머니의 신문 기사를 읽고 학생들과 함께 감사편지를 보냈더니 졸업식 날 축하를 위해 찾아왔었다고 하였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다. NIE는 소통하고 나누며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 NIE 발전을 위해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NIE 전문 강사들과 NIE 전문기자들에게 감사하다. 그분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NIE가 뿌리내릴 수 있었고 그 수혈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척박한 제주에서 NIE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NIE학회 회원들에게도 고맙다. 최근에 글쓰기와 철학 등에 관심이 옮겨가면서 NIE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NIE에 대한 애정은 크다.”

“NIE 만으로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는 확신할 수 없다. 어떤 강사는 NIE 만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강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들 강사들의 활동을 들여다보면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신문활용교육에 대한 애정과 복합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로 결론 내리는 것이다. NIE를 제대로 하려면 기법 중심이 아니라 종이신문, 인쇄매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NIE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적향상이 목적이라면 NIE가 반드시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시민의식 고양과 고취이다. 이것을 빼고 NIE교육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자칫 NIE 교육을 교과내용을 공부할 때 생생하게 사례로서 활용한다거나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좋은 재료, 퀴즈놀이, 오리고 붙이는 뇌훈련 재료 같은 차원으로만 신문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시민교육의 차원임을 도외시하면 안된다. 그것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의식화 시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에서 풀어내는 것이 좋다. 사교육은 성적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돈이 되지 않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교육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NIE에 중요할 수 있다. 이것이 외부환경적 요인이지만 인적 요인은 어떻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회원에 포진해 있고, 사교육을 하는 사람 중에도 공동체에 나의 일이 기여하면 좋겠다는 성원이 더 많다면, 본래의 교육적 재료로서 신문의 의미를 더 살려낼 수 있을까 더 고민할 것이다. 최근에는 미디어 활용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에 대해서도 편협하게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영상자료만 미디어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전체 미디어의 역할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를 봐야하는데 영상제작 등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만 미디어교육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 어떤 것이든 다른 것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NIE를 할때 절대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느리게 읽기>와 연관성이 있다. 종이이기 때문에 느리게 읽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읽기의 속도를 늦출수 있다는 것, 종이의 질감, 인쇄매체가 인지능력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지과학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을 활용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슬쩍 보는 교육이 아니라 읽는 교육이다. 뉴스리터러시도 유행처럼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한다. 독해력만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다. 뉴스리터러시를 <읽고 요약하고 표현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된다. 신문사가 뉴스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 뉴스리터러시 교육보다는 아직까지 신문스크랩처럼 보여지는 교육방식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 NIE 학회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뉴스리터러시 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읽고 토론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언론에 오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NIE교육이 잘 되었을때 가능한 것이다.”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것이 NIE 학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 단편적 특강을 가지고 역량이 강화될 수 없다. NIE학회는 시민운동 기관이어야 한다. ‘돈벌이’ ‘사교육’에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심도 있게 어떻게 가야하는지 학회의 방향성을 고민하지 못하였던 선배들의 잘못도 있다. ‘미디어 비판기능’을 해야 NIE 학회가 존재이유를 가질 수 있다. 미디어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미디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야하고 현 사회에서 미디어가 잘 여과하고 있고 잘 비추고 있는지 공부해야 한다. 교육방법, 기술은 쉽게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을 꿰고 있다면 기술은 금방 훈련될 수 있다. 비판하는 것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시회와 대회 등 사업을 위한 모임으로 굴러간다면 경쟁력이 없다. 스테디를 계속 하고 있다가 전시회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교육하려면 공부를 안해도 되는 건가? 그것은 아니다. 교육자가 먼저 스스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내면화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강00* 는 여전히 스크랩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 10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는 스크랩노트를 갖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제시한다.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메모를 해야 한다. 지금도 공부하고 스크랩을 하고 있다. 연구하고 공부하려면 신문을 보고, 뉴스분석을 해야 하고, 교육적 자료로 의미 있는 것, 왜곡된 것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것을 교육적 자료로 실험해보기도 하고 공부하고 스크랩을 해야 한다. 일단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것이 없다. 서로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아비판 해야 하고, 전시회 등 행사를 통해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자생적이고 자발적 이라기 보다는 언론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의존형 사업이라는 것도 문제이다. 스스로 전시하고 싶어해야하고, 가르쳐 보니 이것을 알리고 싶다는 자발성이 발현될 때 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되어야한다.

자극을 주기위해 대회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NIE 학회의 존재’를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NIE가 좋다’는 것을 과급해야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좋은 교육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NIE의 매력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은 좋은 NIE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을 놓치면 안된다.”

강00* 는 지금 NIE의 활동과 방향성에 대해 비판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비판의 소리에 대해 열어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이를 위해 회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판의 목소리를 함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람중심으로 모인 단체이다. NIE 강의를 함으로써 회원들을 배출해낸 강사로서 10년 동안 NIE강의를 꾸준히 하다보니 지도자가 꾸준히 배출되어 왔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다. 교육에서는 역량강화를 책임졌고 침체기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 봐야 한다. 전시회도 잘 하였고 신문사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하였던 부분이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치른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 그만큼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볼수 없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분석해야한다. 왜 자발적이지 않을까, 보수교육도 하는데 참가자가 적고, 왜 더 알아보려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일단 NIE 교육시장 규모가 좁다. NIE가 특수과목이라고 해도 회원들이 나름 노력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본다면 학회원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컸다고 할 수도 있다. 강사 김00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열정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사교육업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제대로 매체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즉 독해교육도 하고, 시민의식교육도 하고, 사고력향상교육도 하고, 글쓰기교육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는 모임

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려면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활용한 시민의식교육에 집중하고 싶다면 시민, 인권 등등 주제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하니 얼마나 많은 공부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지향점을 같이 하면서 자신들도 시민의식교육,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00* 는 제주NIE학회의 틀을 재구성해야한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NIE 학회는 신문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신문기자, 대학에서 미디어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포함하는 조직으로 변모해야할 필요도 있다. 학회는 미디어운동과 미디어 교육이 같이 가야한다. 10년 동안 뉴스비평 활동을 꾸준히 하기도 하였다. 뉴스를 보고 비평하는 글을 아침마다 보내는 역할을 10년동안 한 것이다. 그래서 정보를 보고 듣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비판하는 틀에 익숙하다. NIE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였다. 신문 만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를 읽고 비평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진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학회일까라는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규정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비판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지금 회장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한다. 회장하면 사업에 치이고 있어 더욱 그런 것이라고 본다. 논문 <시와 영화의 상호텍스트성 연구>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만난 사람은 강00** 강사(NIE학회 회원)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00**가 NIE를 시작한 것은 다른 1기 학회원들의 이유와 유사하다. 독서지도사 교육을 받고 스터디를 하다가 새로운 공부를 찾다가 NIE 지도자 과정이 개설되었다고 해서 함께 받은 1기 과정 참여자였다.

“NIE 강사 활동의 취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식만이 아니라 사회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에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의무감, 사명감 등이 깔려 있었다.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하였다. 단순한 기법을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독서가 바

탕이 되어야 튼튼한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1기 회원들은 여전히 독서와 NIE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해보면 아이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NIE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준비가 엄청 많지만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 그중에 일부밖에 안되지만 그 준비과정 속에서 강사도 성장한다.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열린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강사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변화도 달라진다. NIE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아이들만 잘산다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돈벌이를 무시할 수 없지만 사명감이 깔려 있어야 한다. 출발은 사명감과 행복한 세상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시작하였다고 받아야 한다.”

강00** 강사는 지속가능요인으로 첫째 사명감, 둘째 교육철학을 가장 큰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부분이 약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 때문에 최근 활동 중인 새로운 회원들의 마인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1기의 책임도 있다고 성찰하기도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핑계일수 있지만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 만큼 마음만큼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다. 몇 년 있으면 NIE영역으로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영어 수학 역사 등을 아우르는 학원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다. 하지만 NIE를 하는 학원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은 좋아한다. 어린시절 NIE를 하였던 아이들의 발전적인 변화가 보인다. 아쉬운 것은 영어 수학을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시간을 쫓기듯이 하는 것이 어렵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꾸준히 신문스크랩활동을 하다보면 변화가 있다. 꼭 필요한 아이들은 추려서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오는 원생들도 있다. 원장이 직접 NIE를 하고 있다. 영어 수학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어서 교육비도 저렴하게 받고 있다.”

강00**강사는 강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NIE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학원을 운영하다보니 주된 교육은 영어와 수학 역사 등이니까 NIE를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교육비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NIE는 강사와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 1~2년은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강00**강사는 NIE가 지속가능해지려면 학회는 대외적 이미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서 여러 곳을 찾아가서 홍보하는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한 학교에 대해 꾸준히 교육이 이뤄지면 1~2년 이후 성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그 학교를 벤치마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신문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러 곳에 한번씩 찾아가는 사업은 초기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은 이같은 사업보다는 질적인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NIE를 하면서 아쉽거나 후회가 되는 것은 매일 신문을 보고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업도 확대하고 싶은데 여건상 어렵다는 것이다. ‘지속적 신문읽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영문과 출신으로 학원원장의 일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다. NIE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독서와 NIE를 함께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면접 대상자는 강00***강사, NIE학회 회원이다. 역사, 독서, 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결합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하다.

강00***강사는 NIE를 종이신문 활용교육으로만 인식하면 지속가능성에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학교현장에서도 뉴스를 활용한 교육, 영상뉴스 등 미디어를 활용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NIE학회도 변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NIE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을 보면 같은 상황이더라도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NIE 만으로 지속가능성을 갖느냐로 강사들을 나눈다면 나 자신은 애매

한 부분이 있다. 잘 읽고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독서와 NIE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NIE 수업만을 두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부 NIE를 통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수업을 창출하는 강사도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NIE를 통해 자녀교육을 성공적으로 하였다고 평가받는 것과 독서교육 등을 결합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강00***강사는 제주NIE학회의 정체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추세에 대한 생각도 깊은 강사이다. 미디어교육, NIE가 교육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회원들이 공부도 하면서 교육시장에서 인정받기를 바란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배우고 자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통성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NIE학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NIE의 확장성을 고려해도 신문만을 활용한 교육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3) C그룹 NIE 강사 면접

C그룹은 NIE 활동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NIE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첫 인터뷰 대상은 김00 회원이다. 현재 제주NIE 학회원이지만 돌봄교실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현재 동화구연, 병설유치원 중일반 돌봄 교사, 시낭송가, 한국무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NIE학회 활동이다. NIE가 유익한 교육재료인 것은 알지만 늘 조금은 죄책감을 갖고 있다. NIE학회는 NIE에 대한 절실함을 가진 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본업이 생기면 ‘다음에 할게’ ‘지금은 안돼’하면서 빠지는 것은 미안한 맘이 든다고 말하였다.

“회원들이 많지 않아서 빠져나가기 어렵다. 냉정하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한다. NIE학회가 가야할 길이 보이고 나는 ‘둘레사람’인데 간절함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NIE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야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다보니 사람들끼리 만나서 스터디를 해야 자기성찰이 되고, 10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언젠가 NIE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응원군으로 가야하지만 본질적인 학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현장에서 NIE를 하는 사람들이다. 2006년에 탄생하였고 10년이 넘었으니 10년이라는 것을 다시 고민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참여할 수 있는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한다. 결속이 미흡하다. 절실한 사람들이라면 NIE만으로 경제력이 영위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 NIE 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 소수인원 일 텐데 그 분들이 결속력이 약하다. 교육방식에 대한 유행적 측면에서 인기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융합하고 접목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NIE의 본질을 연구하면서 나가야 한다. 절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라도 주눅들것 같고, 그래서 당당히 회장을 하기가 어렵다. 지속가능한 요인은 일차적으로 절실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학회를 리드해야 한다. 각자의 역량에 맡기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연구할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 다른 길로 일자리를 찾아서 간 경우에는 ‘인간적 관계’ 때문에 학회에 남아있고, 언젠가 다시 NIE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을 살짝 담그고 끈을 유지하고 감을 유지하자고 생각해 있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그렇다. 그렇다보니 적극적인 연구와 공부, 활동은 사실상 어렵다. 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질적으로 학회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NIE 전체 회원을 위한 보수교육도 중요하지만 절실한 회원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만 잡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사람이 빠지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절실한 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모임이 내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김 회원의 면접결과를 통해 유추해본 지속가능요인은 (1)NIE 활동에 대한 절실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은 다양한 일을 하다보니 NIE 활동에 대한 절실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NIE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NIE 학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이어 만난 회원은 곽00 NIE 회원이다. 2017년 제주NIE 학회 회장을 맡아 NIE 학회가 추진하는 대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사이다. NIE 학회장으로 맡겨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갖고 있지만 50대 여성이자 네 아이의 엄마,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상황 등에 따라 공식적인 NIE학회 사업 이외에 지속적으로 NIE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00 회원은 자녀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동화구연, 독서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배우다보니 NIE를 배우게 되었다. 회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NIE를 배우면서 아이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계속 느끼면서 반성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고, NIE를 가르쳤다는 것을 아이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NIE 효과는 확실하다고 본다. ”

곽00회원은 NIE를 가르치지 않지만 학회장을 맡아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곽00회원은 책임감으로 회장을 맡았으니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크다.

곽00 회원은 제주지역 NIE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NIE학회의 활동과 함께 신문사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그는 “신문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학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고 강조하였다.

“NIE를 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였던 것 같다. 공모전 같은 대회가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협동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 작품이 수상을 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가 NIE 강사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엄마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준 것 중에서 NIE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하는 수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NIE에 대해 배우는 것은 여전히 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교육에 참가하였고 배우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같이 NIE를 배우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좋아서 그들과의 만남이 즐겁다. 아쉬운 점은 NIE학회가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으로서는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제주를 대표하는 NIE 강사모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임기동안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 NIE 학회에는 NIE 이외에도 재능이 있는 회원들이 많은 것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C그룹 강사들의 면접을 통해서 도출한 지속가능한 요인도 A, B 그룹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C그룹 강사들의 경우 현재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몇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었다. NIE 학회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이어서 자녀교육 문제와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NIE 활동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갖기 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나 일자리를 찾게 되어 NIE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다. NIE 활동을 시작하는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지속하지 못하는 개인적 사정도 다양한 것으로 나왔다.

C그룹은 지속가능요인보다 저해요인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얻어낸 지속가능성 저해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NIE 강사별 태도와 능력의 격차 (2)NIE활동에 대한 목표, NIE의 근본적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 (3) NIE에 대한 신문사, 제도의 인식문제 (4)다른 교육방법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떨어짐 (5) 학교교육 현장의 문제 등이었다.

A, B, C 그룹으로 정리된 강사들의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들은 NIE 강사들의 이

야기는 연구자에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다. 이들과의 심층인터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NIE학회 활동을 하는 강사 위주로 하려고 하였던 계획은 NIE 강사로 확장해야 하였다. 1, 2, 3차의 인터뷰를 거치는 동안 이들에 대한 그룹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룹으로 나눠 분석하는 것은 ‘지속가능요인’을 가지고 NIE를 바라보기에는 각 그룹 강사들이 제시하는 지속가능요인의 차이를 검토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NIE 한라일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신문사의 이야기를 하는 강사들은 NIE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신문에서 NIE에 대한 연재를 하면서 주목받았던 것도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라일보 NIE 지면이 NIE 강사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신문사가 지역에서 NIE 강사들과 협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도출된 점은 지역사회와 신문사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문제는 NIE 사업을 하는 신문사들이 공모전이나 사업을 할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사가 NIE사업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다양한 계층에 NIE를 한다고 하였을 때 몇 곳을 선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사들이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한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쓸모 있는 기사’가 많아져야 한다. 문맥이 모호한 기사, 아이템의 한계, 편향된 기사 등은 ‘쓸모 있는 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가 좋아야 요약이 되는데, 요약이 어려운 모호한 기사들도 있다. 기사 아이템의 한계도 있다. 해녀이야기 등 모아둘만한 기사가 있지만 기사 광고의 다양성 교육측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특집기사 등 아이들이 볼만한 기사들이 좀 많아져야 한다. 이 연구에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이야기를 나눈 NIE 강사들은 몇 명 더 있었다. 그러나 면담 내용이 이미 정리된 강사들의 이야기와 중첩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아 정리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하였다.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연구결과 제주지역 NIE 활동의 지속가능요인은 몇 가지로 명확하게 요약해 내기는 어려웠다. 도시, 환경, 개발, 교육 등에 접목된 지속가능요인을 접목하는 것 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연구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면접을 통해 세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지속가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적요인, 조직적요인,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룹별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A그룹의 경우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교육활동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고 자아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이 컸다. 또 신문사 역할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A그룹의 지속가능요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속가능요인이 강화될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분이 담보되어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

B그룹의 경우 좀더 복합적 지속가능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은 A그룹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들의 경우 A그룹의 일부 면접자가 제시한 ‘다른 교육과의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측면을 중요하게 보는 측면이 컸다. NIE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그룹 또한 NIE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의견은 A그룹도 유사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C그룹의 경우에는 현재 NIE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NIE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룹이다. 그러나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오랫동안 NIE 교육을 통해 자아성장과 인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기에 현재까지 NIE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다.

면접을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요인은 다음과 같다. (1)강사 자신의 자아 성장을 통한 성취감 (2)지속적 신문 읽기의 필요성 (3)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향 (4)

신문사의 NIE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 (5) NIE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취 (6) NIE 지도자 활동을 통한 교육자로서의 보람 (7)창의성 (8) NIE를 활용한 자녀교육 (9) 강사들의 인간적인 네트워크 및 신뢰 (10) 다양한 교육과 결합용이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해요인은 (1) NIE에 대한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음 (2) NIE활동 강사들의 인간적 갈등 (4) 신문사의 적극적 NIE 지원활동 부족 (5) 신문기사의 정확성 등 교육적 자료 활용도 떨어짐 (6) NIE를 통한 자신의 성장(자아실현)기회가 부족 (7) NIE를 통한 경제적 도움이 안됨 (8) 신문 단일 매체활용 교육의 인기 하락 (9) 시민교육 및 공동체 교육활동에 참여한다는 사명감 부족 (10) 학교 현장에서 인식 미흡 등이다.

또 신문저널리즘의 신뢰도 하락도 NIE의 지속가능요인을 저해하고 있다. 신문저널리즘이 위기라는 것은 NIE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신문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강사들이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결론

면접결과 NIE 강사 중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한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방안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문을 통한 학습에서 출발한 전통적인 NIE 역할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융합과 멀티플랫폼 현상으로 신문이 더 이상 종이신문으로 국한되지 않고 문자매체로 제한되지 않는 만큼 NIE영역을 확장하고 그 역할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전통적인 NIE와 차별하기 위하여 디지털 NIE로 명명되고 있기도 하다.

면접을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요인은 다음과 같다. (1) NIE에 대한 지향점이 명확 (2) NIE를 통한 긍정적 성장사례 경험(지도 학생, 자녀 등) (3) NIE활동 강사들의 인간적 친밀도 (4) 신문사의 적극적 NIE 지원활동 (5) 신문기사의 정확성 등 교육적 자료 활용도 (6) NIE를 통한 자신의 성장(자아실현) (7) NIE를 통한 경제적 도움(8) 융합적 교육이 가능한 NIE의 특성 (9) 시민교육 및 공동체

교육활동에 참여한다는 사명감 등이다.

면접 결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강사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제시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NIE 강사별 개인의 능력별 격차, 둘째 NIE의 교육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학회의 정체성 대한 의견이 게 나오고 있음, 셋째 NIE를 바라보는 신문사, 학교의 잘못된 방향, 넷째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미약, 다섯째 단기간에 학습적 효과를 볼 것이라는 인식, 여섯째 학교 현장에서 인식 미흡 등으로 제시되었다. NIE 강사에 대한 인식,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미흡하지만 NIE 강사 혹은 지도자를 연구함으로써 NIE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자료가 되길 바란다. 또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야에서 NIE까지 확장되길 기대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NIE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강사들에게도 힘이 되는 연구이기를 기대한다. 추후 연구로 제주지역에 연구를 한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비교연구해 보는 것도 제안한다.

NIE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단순 효과를 노린 신문사의 구독확장 욕심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제주지역 NIE는 공멸의 길로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미디어교육을 하는 NIE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을 포함한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직종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군으로 가능성도 열어둔다면 언론학 전공자들의 진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을 밝혀둔다. 실제 NIE 강사들은 개인에 따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서 제도적인 발걸음이 느린 것도 NIE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이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데 반해 미디어 교육정책의 체계화는 여전히 담보상태다.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미디어교육지원법은 10년 동안 세 차례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묵은 숙원사업으로 남아있고, 미디어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총괄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하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NIE 지도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NIE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도 직접적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 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NIE 교육이 진행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을 학교에 보내주는 것 만으로는 NIE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어렵기 때문이다.

3)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연구자 본인이 제주NIE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문사에서 NIE를 담당하였던 기자라는 점에서 면접내용을 객관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연구의 편의상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지만 그룹의 차이가 개인의 실력의 차이나 NIE에 대한 지향점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힌다. 현재 C그룹이라고 할지라도 향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그룹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면접대상자들의 생각이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강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 신문사 담당자 등 NIE 주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제주 NIE 활동의 지속가능요인에 대한 연구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를 하면서 연구에 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NIE의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NIE교육만으로는 경제적 지속성을 담보 받지 못한다는 강사 혹은 NIE학회 회원들은 NIE활동의 지속성을 환경적 변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NIE에 대한 정의가 신문활용교육에서 미디어활용교육, 뉴스리터터시교육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회의 활동반경도 확산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공교육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면서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기관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중 하나의 주축이어야 할 신문사의 재정여

건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교육사업 투자를 줄이는 것도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NIE 활동을 하는 NIE 강사를 모두 만나지 못한 것이다. 차기 연구에서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NIE 강사들의 의견과 학교현장, 신문사 등에서 NIE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선(2014). <신문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신문활용교육이 중학교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
- 강석우 외(2004). <NI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은미(2012). <NIE 이해와 실제-생각을 건축하라>. 도서출판 이미지북.
- 구정화(2005). <한국신문협회 소속 회원사의 NIE 운영실태> 한국신문협회.
- 권금자(2004).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 학습이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공주
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 김경환 외(2011).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한국언론진흥재단.
- 김기태·권혁남·김양은(2007). <NIE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및 효과 검증>. 서울:
신문발전위원회.
- 김기태·김영순·강진숙 외 (2006) '미디어 교육과 교과과정'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기태·이연·허병두·이소현·고은희(2010). <한국적 NIE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국
내 NIE 실태 및 해외사례 연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숙·김경희(2012). <청소년들의 매체별 뉴스 읽기 행태 분석: 신문 읽기를 중심
으로, 청소년들의 뉴스 읽기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 김양은(2005). <미디어 교육의 개념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 김영만(2005).<매체를 활용한 읽기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신문사설·칼럼을 중심
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순·박지선(2006) <디지털 시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미디어리터러시 방법
론>.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김영주 외(2013). <스마트 시대 신문의 위기와 미래>.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용술(2006). <신문활용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운·정희경(2005). <미디어경제학>.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태영(2012).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정신>. 도시행정학보 25권 3

호

- 김학실(2012).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탐색>. 지방정부연구, 제16권 1호
- 김학희(2004). <신문활용교육이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창(2005). <일본을 움직이는 힘: 일본 신문>. 서울: 전망.
- 김향란(2015). <NIE 활동과 아동의 창의력 신장에 관한 실험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훈순(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337~373.
- 나성은·공영태·옴김(2008). <핀란드 교육의 성공>. 서울: 북스힐.
- 문혜성(2004) <미디어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미디어전략연구소(2011).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동숙·이경숙·정수영(2010). <글로벌 읽기문화 프로젝트: 신문읽기문화 진흥 실태조사 및 읽기문화 진흥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미영(2005). <NIE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NIE 실천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박부규(2006). <신문으로 논술 따라잡기 1,2>. 삼성당.
- 박성희·김세은·전경란(2010). <어린이 신문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종혁(1999). <주제중심 신문활용 수업이 아동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 및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진우·김예란(2011). <디지털 시대의 읽기 문화: 쟁점과 전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진희(2005). <NIE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백미숙(한국언론정보학회 위임,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5장 구술사연구 방법
- 변중임·한진숙(2001). <유아의 신문활용교육>. 정민사.

- 설규주·이두희·김명정(2010). <학교 NIE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설규주·김명정·이봉민(2011). <NIE 실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정치정보연구 14권, 77~100.
- 성태모(2003). <자기주도적인 NIE 학습방법 연구: 통합적인 국어 능력 향상 모형>. 교육연구 26호, 115~118.
- 손민정 남택진(2011). <지속가능 인터랙션 디자인의 이해-사용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속성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97호.
- 손성규(2005). <중학교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NIE자료 개발 및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손승혜·황하성·장운재(2011). <교육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송민주(2007). <신문활용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문과 방송> 2009년 6월호 특집 <신문의 새 활로 NIE> 신문발전위원회.
- 신헌재·김형석·이재승·이경화·김도남·임천택(2001).<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 방안>. 박이정.
- 심옥령(2003). <초등교육과정의 NIE프로그램 설계와 활용방안>. 한국신문협회 NIE세미나 자료집.
- 윤영태(2011). <사회 NIE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상현(2009). <NIE 관련 지면과 프로그램 현황>. 『신문과방송』, 6월호, 122~125.
- 이오현(한국언론정보학회 위임,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 7장 미디어생산자 연구 행하기.
- 이정훈·이두황((2011). <디지털 시대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철우·문종대·안차수(2010). <한국 NIE 실태 분석과 개선방향>.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현숙(2011). <우리아이 신문놀이 엄마하기 나름이다>. 푸른길.

- 이현정(2016). <학교혁신의 지속가능성 저해요인 분석> 광운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정기섭(2013) <지속가능성의 이념과 미래를 위한 교육의 과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8권 3호 특별기고
- 정문성(2009). <한국신문협회 NIE 관련 연구분석을 통한 NIE 발전에 주는 시사점>. 신문협회 NIE 기자 워크숍 자료집.
- 정문성 외(2010). <NIE가 학업성취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정현선·옥현진(2010). <NIE 교육과정 체계화를 위한 ‘신문과 생활’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조수선(2010). <중앙 일간신문의 교육 섹션 비교분석>. 동서언론 13호, 89~115.
- 최민재(2006).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 서울:한국언론재단.
- 최상희(2003, 2009) <NIE이해와 활용>. 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 최상희(2010). <사회과 학습 자료로서 신문의 효과적인 재구성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16권 1호, 197~224.
- 최상희·오주석(1999). <NIE 지도전략>. 서울: 내일.
- 최영출 서순복(2012).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개념의 정책적 핵심요소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2호.
- 최현미(2012).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실천적인 가능성 연구-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지속형 커뮤니케이션 모델 제안>. 디지털디자인연구 33권.
- 한국신문협회(2009). <NIE 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의사소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한국신문협회.
- 한국신문협회(2011). <NIE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재단(2006). <2006 한국의 NIE>.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재단(2008). <미디어 교육 교사연수 자료집>.
-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의 정규교육 정책화 방안 연구>.
-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학교 NIE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한라일보(2011) <찾아가는 NIE 교육자료집>.

한진숙(2000). <일본어 교육을 위한 NIE 활용 방안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허병두(1997).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 M&B.

황유선·박진우·김위근(2011). <NIE와 교육효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황치성(2007). <NIE의 메카로 떠오른 핀란드>. 신문과방송 2월호, 122~125.

황치성(2012).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대응방안: 신문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오늘의청소년 7~8월호, 2~11.

<ACT! 102호 이슈와 현장, 2017.03.10> 미디어교육 법제화 성공의 선행조건은?

NAA(2005). Growing lifelong readers: The impact of student involvement with newspapers on adult readership.

NAA(2006). Lifelong readers: The role of teen content.

<http://www.naafoundation.org/Resources/Awards/Youth-Content-Awards.aspx>

NAA(2011a). Newspaper in education is alive and well in 2010.

<http://www.naafoundation.org/Resources/Awards/Youth-Content-Awards.aspx>

NAA(2011b). A qualitative study of teacher's perceptions newspaper in education.

http://www.americanpressinstitute.org/Research/Foundation/NIE/~media/NAAFoundation/Files/Research/NIE_focus_group_report.ashx

Rausch, A. S.(2004). 'Newspaper in education' in rural Japan. Journal of Asian Pacific Communication, 14(2), 223~244.

Raundalen M. & Steen, J. V(2004). Children in newspapers-A global content study. WAN.

Sullivan, B. L.(2001, June). Newspapers: In the classroom and beyond. Quill, 72~73.

WAN & IFRA(2010). World Press Trends 2010.

<http://www.pressnet.or.jp/adarc/data/data01/02.html>

NIE: Changes & Challenges With the future of newspaper readership on the line, papers pull out all the stops to support Newspaper In Education programs

EDUCATION. Good newspaper Internet sites feed NIE efforts

NIE, Globally Newspaper In Education programs around the world help fill a special need in today's classrooms

Abstract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Factors of NIE Activities in Jeju : A Case of Jeju NIE Society

NIE (Newspaper In Education) i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utilizes a newspaper as a textbook. A newspaper is a medium of long standing history. The refined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a newspaper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mocratic system by developing healthy public opinion in the middle of the new media age, in which a countless amount of information is abound.

Although the NIE activities in Jeju are mainly run either in schools or newspapers, it is the NIE instructors and lead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NIE programs promoted by schools and newspaper companies, link the two entities together. Jeju NIE Society is a voluntary research group that was established in 2006 in Jeju, composed of exemplary instructors of the field.

In this study examined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of the sustainability of NIE Society.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of NIE instructors in Jeju, which were 10 in total. The result of the research was produced based on interview data. After the interview,

the instructor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awareness of sustainability". The first group fully appreciated and took an optimistic view on its sustainability of NIE alone, whereas the second group considered NIE be sustainable by maintaining complex programs, and the third group continued as NIE Society members but not actively engaged as lecturers.

In this study, several factors of its sustainability, based on the interviews of members in NIE, are suggested as follows. There are several positive factors of sustainability of NIE activities: (1) the sense of accomplishment by the lecturer's personal development; (2) continuous reading of newspapers; (3) social interests and directions; (4) sustainability of the NIE support and business power; (5) financial achievement through NIE activities; (6) the sense of fulfillment as a NIE instructor; (7) creativity; (8) children's education using NIE methods; (9) human network and trust among the instructors; and (10) the ease of combination with various fields of education.

Impeding factors include (1) uncertain directions of NIE; (2) relationship conflicts among the NIE instructors; (3) the weakening support of NIE projects in newspaper companies; (4) the decreased use of newspaper due to the lowered public trust of newspaper journalism; (5) lack of opportunities in personal development through NIE; (6) few financial benefit through NIE; (7) dropped popularity of newspaper-based media education; (8) lowered sense of mission in partaking civic education and community education; (9) low public awareness at schools.

In order for NIE activities in Jeju to be sustainabl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efforts to maintain sustainable positive factors and to improve efforts to improve sustainability.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to study the sustainability of NIE beyond Jeju.

This study was limited that it was short of the in-depth research of the need not only for the changes in NIE instructors and leaders but also in schools, newspaper companies, fields of education, and the overall system in order to ensure sustainability of NIE . It is believed that continuous researches and efforts are needed for the future.

Key words: Newspaper in Education (NIE), Sustainability, NIE Instructor, Jeju NIE Society.

부록

1)제주NIE 학회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niejeju>

2)제주NIE학회 활동에 대한 제주지역 일간지 신문기사

해당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주NIE학회>로 검색해 얻은 결과임. 제주일보, 제주매일에서는 해당 기사 없음.

①한라일보

기사목록

[세상을 보는 눈 신문(NIE)]"NIE로 아이들의 창의성·사고력 키워요"
2009. 01.01(<http://s1.ihalla.com/read.php3?aid=1230735600287188193>)

"제주지역 신문활용교육 선도한다"한라일보, NIE 자문위원 위촉식 열어
2009. 01.30.(<http://s1.ihalla.com/read.php3?aid=1233241200289370042>)

[생각을춤추게하는NIE](2)언어영역 NIE활동
2009. 03.10(<http://s1.ihalla.com/read.php3?aid=1236610800292616193>)

[생각을춤추게하는NIE](6)관찰력을 키우는 NIE활동
2009.4.7(<http://s1.ihalla.com/read.php3?aid=1239030000294930193>)

[생각을춤추게하는NIE](37)연재 평가 “꾸준히 하면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2009.12.15(<http://s1.ihalla.com/read.php3?aid=1260802800317345193>)

제주서 첫 NIE 전시회 열린다

2010.01.06(<http://s1.ihalla.com/read.php3?aid=1262703600319294121>)

신문활용교육에 뜨거운 관심 제주첫 전시회 1800명 찾아

2010.01.11(<http://s1.ihalla.com/read.php3?aid=1263135600319667120>)

2010 한라일보 NIE 소개

2010.03.09(<http://s1.ihalla.com/read.php3?aid=1268060400324506193>)

NIE 생츨팀이 찾아갔어요-유진재활센터 장애인 NIE 교육

2010. 03.23(<http://s1.ihalla.com/read.php3?aid=1269270000325765193>)

남광초 NIE 축제 현장 “신문으로 재밌는 축제 만들어요”

2010.11.09(<http://s1.ihalla.com/read.php3?aid=1289228400346443193>)

2010 NIE 사업 총평 -도내 NIE 현장 찾아간 즐거운 실험여행

2010.12.07(<http://s1.ihalla.com/read.php3?aid=1291647600348640193>)

NIE는 생각을 춤추게 해요-NIE 전시회 성황

2010.12.13(<http://s1.ihalla.com/read.php3?aid=1292166000349223164>)

“교과서와 신문 함께 읽자”-제주시 교육청 NIE 교사 연찬회

2011.04.23(<http://s1.ihalla.com/read.php3?aid=1303484400360918120>)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

2011.12.22(<http://s1.ihalla.com/read.php3?aid=1321887600380615193>)

교육현장에서도 확인된 NIE 효과

2011.11.29(<http://s1.ihalla.com/read.php3?aid=1322492400381235043>)

산남에 부는 NIE 바람

2012.05.30(<http://s1.ihalla.com/read.php3?aid=1338303600399168193>)

“신문과 친구가 될 것 같아요”-도리초서 찾아가는 이동전시회

2012.09.20(<http://s1.ihalla.com/read.php3?aid=1348066800409515044>)

“신문속 다양한 세상으로 가을여행 떠나볼까요?”

2012.10.23(<http://s1.ihalla.com/read.php3?aid=1350918000412377193>)

“창의력 키우는 NIE-활성화 필요성 공감”

2012.10.29(<http://s1.ihalla.com/read.php3?aid=1351436400413011073>)

“신문활용교육 활성화 함께 나서야”

2012.11.06(<http://s1.ihalla.com/read.php3?aid=1352127600413762043>)

NIE야 놀자 “신문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워요”

2013.01.18(<http://s1.ihalla.com/read.php3?aid=1358434800420723193>)

[창간24특집]NIE야 놀자! -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

2013. 04.22(<http://s1.ihalla.com/read.php3?aid=1366556400428833193>)

NIE야 놀자 “마음속 아픔 달래줄 심리치료, 소통 창구”

2013.05.10(<http://s1.ihalla.com/read.php3?aid=1368111600430688193>)

[NIE야 놀자]진로와 NIE-(1)마음열기

2013. 05.14.(<http://s1.ihalla.com/read.php3?aid=1368457200430934193>)

제1회 NIE 대회 열린다-제주NIE 학회 주관

2013.10.13(<http://s1.ihalla.com/read.php3?aid=1381615649444204073>)

제주서 처음 열리는 'NIE 축제'

2013. 10.25(<http://s1.ihalla.com/read.php3?aid=1382626800445210043>)

수백명이 함께 신문 읽고 창의력 'UP'

2013. 10.28(<http://s1.ihalla.com/read.php3?aid=1382886000445328044>)

NIE사업 소외계층 등으로 확대해야

2013. 11.05(<http://s1.ihalla.com/read.php3?aid=1383577200446055043>)

우리 아이가 NIE로 달라졌어요-(10·끝)노력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아이

2014. 09.30(<http://s1.ihalla.com/read.php3?aid=1412002800476168193>)

(1)책과 NIE-친근한 책을 읽다보면 신문이 보이네

2015. 06.11(<http://s1.ihalla.com/read.php3?aid=1433948400502432193>)

인문학과 만난 NIE 전시회 "놀러오세요"

2015. 11.12(<http://s1.ihalla.com/read.php3?aid=1447308710519999036>)

[NIE와 어린이 경제교육] (1)신문과 함께하는 경제 여행

2016. 05.27(<http://s1.ihalla.com/read.php3?aid=1464274800537508193>)

신문속의 선생님 NIE-경제교육의 핵심은 사람

2016. 10.14(<http://s1.ihalla.com/read.php3?aid=1476370800548528193>)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 전시회' 열린다

2016. 11.02(<http://s1.ihalla.com/read.php3?aid=1478048283550051036>)

인공지능 시대 NIE, '사람다움' 키우는 미디어 교육으로 진화

2017. 04.21(<http://s1.ihalla.com/read.php3?aid=1492700400563756020>)

NIE 지도자 양성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2017.05.02(<http://s1.ihalla.com/read.php3?aid=1493702297564630014>)

생각2017 을 춤추게 하는 NIE-현장 탐방 후기

2017.06.16(<http://s1.ihalla.com/read.php3?aid=1497538800568259193>)

②제민일보

기사목록

사물 오려 붙여 상상력 키워요

2015.11.25(<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54>)

신문으로 논리적 사고 상상력 배양

2015.10.05(<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522>)

제2회 NIE 대회 19일 제주영지학교서 열려

2014.10.19(<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25>)

"신문 읽고 16강 희망 표현했어요"

2014.06.25(<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462>)

"신문, 하나씩 배우면서 봅니다"

2014.06.17(<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862>)

논리적 사고법 익히기 "신문이 제격"

2014.06.13(<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613>)

"단어 하나서 생각이 수십갈래"

2013.10.18(<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091>)

"오늘 하루는 나도 신문기자"

2013.10.22(<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832>)

③제주신보

기사목록

"창의력과 사고력 크게 신장돼...신문은 '아침 밥상'과 같아"

2010.09.19(<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2988>)

④제주신문

기사목록

NIE 보수교육 열기 후끈

2015.10.30(<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52>)
